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일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77호

Thursday, July 25, 2024 A

“해리스, 바이든에게서 선거 훔쳐 민주주의 위협” ‘해리스 돌풍’에 트럼프 ‘역공 카드’ 준비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로 미국 대선 레이스에 사실상 ‘무임승차’한 것으로 평가 받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교체가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껏 민주당으로부터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23일 공화당은 여러 성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압박해 민주당 경선에서 그를 찍은 1400만 명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2일 SNS에서 “그들은 바이든이 경선에서 이긴 뒤에 그에게서 선거를 훔쳤다”면서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진정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역시 “민주당은 조 바이든을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택한 14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의 표를 무효화해 자칭 ‘민주주의의 정당’이 정확히 그 반대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측은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발생한 암살 시도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내세우며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오로지 내가 우리나라의 국민을 위해 민주주의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6개월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사람으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정조준하며 대선 토론장에 나오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 “해리스 부통령과 ‘절대적으로’ 토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해리스는) 바이든과 같은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토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공동으로 조사한 1천18명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4%, 트럼프 전 대통령은 4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성향의 주요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 하며 ‘해리스 대세론’에 불을 지피고 있으나, 실질적인 국민 여론은 “두고 보자”는 분위기다. 실제로 백인 중산층 노동자 계급 남성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부 경합주에서는 ‘흑인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한다 해도 “오히려 반감이 커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들 경합주에서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도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꿈꾸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예상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에게 참패했던 바 있다.

박세용 기자

5명 중 3명 “미국은 불경기”

인플레이션 둔화와 꾸준한 국내 총생산(GDP) 성장 등 긍정적인 경제 외형 지표가 나오는 가운데 경기 회복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후불결제 서비스 전문업체 어퍼이 지난 6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인용, 5명 중 3명은 이미 불경기에 진입했다고 믿는다고 23일 전했다. 국립경제연구원(NBER)은 ‘불경기(recession)’를 ‘심각한 경제 활동 축소가 시장 전반에 걸쳐 몇 달간 지속하는 현상’이라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지난해 3월에 경기 후퇴가 본격화했으며, 최장 2025년 7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는 높아진 생활비와 소득 수준 유지 어려움에 따른 불안정한 개인재정 여건 때문이라고 어퍼이 진단했다.

비샬 카푸르 어퍼이 제품 담당 수석 부사장은 “인플레이션 장기가 가계 재정 부담을 가중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을 통제할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에 따르면 향후 3개월간 최소 부채 상황이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12.3%였다. 이는 지난 12개월 평균 12.1%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CNBC는 이를 토대로 당분간 중산층의 경제적 여건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재선 기자

김욱재 기자

VA 7월초~18일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76명

“교통사고 사망자 가장 많은 7월”

버지니아 교통부(VDOT)가 이달 초부터 18일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모두 76명이라고 밝혔다. 올초부터 누적 사망자는 460명이 넘었다.

VDOT는 최근 30년래 자료를 종합하면 연중 7월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전체 사고 건수는 1만1천건으로 4천명 이상이 다쳤다.

VDOT는 전국 도로변 안전강조의 달을 맞아 전미자동차협회(AAA)와

공동으로 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모건 딘 AAA 중부대서양 지부 대변인은 “운전자들은 대체로 속도를 높이면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셈을 하면서 과대계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속도를 높여서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뿐더러, 속도를 낼수록 죽음과 가까워지고 그렇지 않을수록 안전하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AA는 속도를 낼수록 위험상황에서 브레이크 제동거리가 길어지면서

사망확률이 크게 증가한다고 밝혔다. VDOT와 AAA는 버지니아가 작년 부터 무브오버 법률을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로변 정차된 경찰차량과 소방차량 뿐만 아니라 공사차량과 비상등을 켜 모든 차량의 옆을 주행할 때는 차선을 변경해 감속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급경범죄 처벌이 가능하다. 1급경범죄는 최대 1년 징역형과 벌금 2500달러가 가능하다.

버지니아에서는 올초부터 현재까지

모두 66건의 도로변 차량 인명 살상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당국에서는 여름철 여행수요가 몰리면서 준비 부족으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에어콘과 타이어 압력, 벨트, 호스, 각종 용액 상태 등을 체크해야 한다. 고장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대비해 안전 사인판과 휴대용 전등 등을 갖추고 물과 음식을 넉넉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차로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경우에는 충전소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한다.

김욱재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김종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풀만지발피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GOLDEN OPPORTUNITY SALES EVENT



9월 3일 종료

때로는 운전석이 폴장 벤치를 능가하죠

Golden Opportunity Sales Event에서, 운전대를 잡고 여름을 만끽해보세요. 꿈꾸던 Lexus를 찾지 못한 채 계절을 떠나 보내지 마세요. 하지만 서두르세요, 일부 모델에 제공되는 오퍼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깐요.

LEXUS.COM

해리스 이틀만에 역전? ... “트럼프에 2%p 우세” 나왔다

(로이터·입소스 조사)

밀워키서 사실상 첫 대선 유세 시작 “여성학대·사기꾼 스타일 잘 안다” ‘범죄자 트럼프’ 구도로 맹공 나서 민주당·하원 원내대표도 지지 선언



23일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툴라센드라푸람 마을에 설치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형 포스터. 이곳은 인도계 이민자 출신인 해리스 부통령의 모계 조상이 살던 마을이다. [AFP·연합뉴스]

카말라 해리스(59)부통령이 사실상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첫 유세를 시작한 23일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78)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이틀만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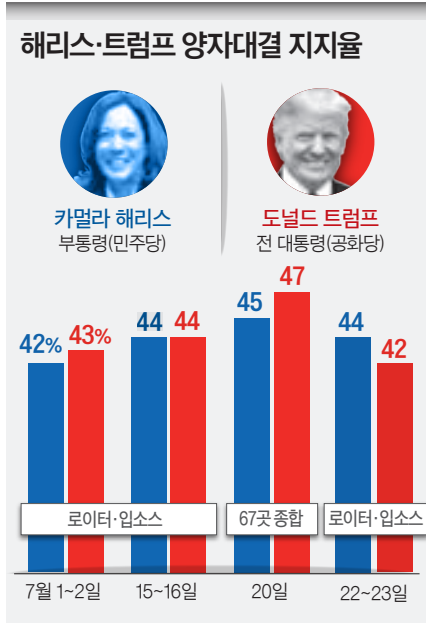
이날 로이터통신이 입소스와 공동으로 22일~23일 1018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44%의 지지를 얻어 42%에 그친 트럼프를 앞섰다. 두 사람의 격차 2%포인트는 오차범위(±3%포인트)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누가 우세하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전날 45% 대 47%로 트럼프를 바짝 뒤쫓고 있다는 모닝컨설트의 조사 결과까지 참고하면 사퇴 직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평균 6%포인트 이상 뒤지던 상황이 해리스의 등장으로 최소한 거의 대등한 ‘원점’으로 되돌아왔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제3 후보까지 포함한 가상대결에서 해리스가 42%, 트럼프 38%,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8%를 기록했는데, 로이터는 “두 사람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의 56%가 해리스가 “정신적으로 예리하고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평한 반면 트럼프에 대해서는 49%만 그렇다고 답했다. 바이든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던 ‘고령 리스크’의 화살이 해리스의 등장

으로 트럼프 자신을 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해리스가 첫 단독 유세지로 택한 곳은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밀워키였다. 첫 유세에서 해리스는 특유의 호탕한 웃음으로 환호를 유도한 뒤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when we fight, we win)”라고 외쳤다. 암살 위기를 넘긴 뒤 “싸우자(fight)”고 했던 트럼프에 대한 정면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쉘 듯한 목소리와 기침, 어눌한 표정과 말



자들은 일제히 “트럼프 구속”을 연호했다.

그가 유세장에 입장할 때 쓰인 노래는 흑인 여성가수 비욘세의 ‘자유(freedom)’였다. 자신의 곡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데 대해 엄격한 비욘세로부터 허락을 받은 공식 캠페인송으로, 흑인 여성의 인권 문제를 담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 흑인 인권 시위에서 자주 등장하는 곡이기도 하다.

비욘세의 노래를 배경으로 해리스가 등장하자 지지자들은 1분 넘게 해리스를 연호했다. “감사하다”며 환호를 진정시킨 뒤 시작한 연설에서 해리스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장을 한 뒤 지지자들이 따라 외치게 하거나, “어떤 나라에 살고 싶느냐”는 물음을 던진 뒤 “카말라의 나라(a Kamala one)”라는 호응을 끌어냈다. 다소 일방적이던 바이든의 유세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키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해리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위싱턴=강태화 특파원

“해리스는 친자식 없어” 트럼프 러닝메이트 과거 발언 논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러닝메이트 J.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사진 왼쪽)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한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 확실해지면서 이번 선거의 대결 구도가 ‘여성 대 남성’ 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AP통신 등은 공화당 부통령 후보 밴스의 의원이 해리스 부통령이 친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미래와 이해관계가 없다”고 한 과거 발언들을 재조명했다. 밴스 의원은 지난 2021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선거기간 중 폭스 뉴스에 출연해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하며 “자식 없는 고양이 아줌마 무리(a bunch of childless cat ladies)”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과 피트 부티지 지지 교통부 장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뉴욕주 하원의원을 언급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14년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

사와 결혼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자식은 없지만 엠호프 변호사의 전 부인 소생인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동성 배우자와 결혼한 부티지 장관은 쌍둥이 자녀를 입양했다.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공개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영상을 올리며 “여성의 자유를 싫어하지 않는 정말 평범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남자”라고 비꼬았다.

밴스 의원은 이혼이나 낙태 관련 가족 정책이 그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CBS 뉴스에 따르면 밴스 의원은 2021년 한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강간 및 근친상간이 낙태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여성 아이를 강제로 낳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혼에 대해서 밴스 의원은 “폭력적인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도 이기적일 수 있다”며 “사람들이 속옷을 갈아입듯이 배우자를 쉽게 바꾼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에는 낙태 관련 입장을 완화한 공화당 기조에 맞춰 달라진 모습이다. 밴스 의원은 부통령 후보로 지목된 후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공화당의 지도자이며, 임신 중절에 대한 그의 견해가 당을 이끌어갈 견해”라며 “합리적인 예의를 두고 개별 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지 매체들은 민주당 대선후보를 해리스 부통령이 맡는 게 확실해지면서 이번 대선이 남녀 간 대결 구도 성격을 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밴스 의원의 ‘남남(男男) 조합이 유색인종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을 부각할 수 있어서다. 폴리티코는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선거 운동이 낙태와 여성 권리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는 이미 여성 유권자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밴스는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부통령도 선거전에 나서자마자 낙태 이



슈를 내걸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전날 텔라웨어주 선대본부를 찾은 해리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트럼프가 기회를 얻으면 그는 모든 주에서 낙태를 불법화하는 낙태 금지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의원의 강점이었던 젊은 나이가 오히려 짧은 정치 경력에 대한 우려로 뒤바뀌었다는 분석도 있다. AP 통신은 “트럼프가 의회 경력이 2년이 채 안됐고 더 큰 무대에서 검증되지 않은 러닝메이트를 선택하는데 정치적 위험을 감수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장윤서 기자

워싱턴 날씨 (°F)

26일(금)	86~65	29일(월)	88~70
27일(토)	89~67	30일(화)	90~73
28일(일)	91~69	31일(수)	92~72

7월 25일(목) 85~66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부 고

평생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와 조국의 언론계에 헌신해 오셨던 **고 김영호 장로님**께서 지난 2024년 7월 20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초로 워싱턴 지역에 기독교 방송을 시작하셨고 미국 전역에 기독교방송을 설립하시며 복음전파에 희생적으로 헌신하신 김영호 장로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시던 여러분께서 김영호 장로님의 영결 예배에 참석하시어 고별의 정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 별 예 배

일시: 2024년 8월 4일(주일) 오후 4시
장소: Hines Funeral Home
11800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하 관 예 배

일시: 2024년 8월 5일(월) 오전 10시
장지: Norbek Memorial Park
16225 Batchellors Forest Rd,
Olney, MD 20832

연락처: 917-881-6562 유가족: 부인 김(혜) 숙자 권사, 자녀: 아들, 세 딸들

“기다렸다는 듯” 해리스 줄서기 눈총

SPECIAL STORY

공화 호건 전 주지사까지 “칭찬 일색” 민주당 MD 대의원 총성 맹세 비판 시각도



카멜라 해리스 크리스 밴 홀렌 팀 케인 돈 베이어 마크 워너 래리 호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불출마와 동시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새로운 대선 후보로 지지하면서 워싱턴 지역 정치인들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해리스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다음달 전당대회에 투표권을 지닌 대의원이 80% 이상이 이미 해리스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해리스 외에는 다른 대안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메릴랜드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해리스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해 대의원 각자의 민주적 의사표시를 강고히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해리스가 민주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매우 독특한 능력이 있다”면서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해리스 시대의 진보적 태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챔피언을 가질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 탓에 나는 해리스에게 100% 진심을 담아 지지를 보낸다”면서 “그는 이 나라를 단결시킬 지혜와 비전, 경험, 실질적인 능력 등이 있다”고 격찬했다. 그는 또한 “지난 봄 볼티모어 키 브릿지가 붕괴됐을 때 가장 먼저 내게 전

화를 걸어 리더십을 보여줬던 인물”이라고 전했다.

크리스 밴 홀렌 연방상원의원(메릴랜드)은 바이든 대통령의 용단을 칭찬한 다음날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밝혀 시차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 4년간 부통령으로써 그리고 수십년간의 공직 경험을 봤을 때 대통령 일도 잘 해낼 것”이라며 “그는 쉽지만 진보적인 이슈를 관철시키기 위해 싸워왔던 전사”라고 추켜세웠다.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버지니아)과 돈 베이어 연방하원의원(버지니아) 등 버지니아 지역 민주당 연방 정치인들은 바이든의 결단에 대해 감사하다는 발언과 함께 해리스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무찌르고 다시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마크 워너 연방상원의원(버지니아)도 “우리는 11월에 반드시 트럼프를 이기고 우리의 여젠다로 정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콧 서로벨 버지니아 상원 다수당 대

표와 루이제 루카스 버지니아 상원 민주당 코커스 대표 등도 해리스 지지선언에 앞장섰다. 뮌헨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조 바이든 시장이 미국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준 점에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 주지사를 거쳐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래리 호건(공화)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의 가족과 국가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면서 “지금 우리는 매우 위협하고 전례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적 야욕에 앞서 국가를 먼저 생각한 셈”이라고 칭찬했다.

해리스를 정치적 멘토로 선언했던 안젤라 솔스브룩스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군수이자 연방상원의원 후보는 “해리스는 우리 유권자들에게 트럼프와는 질이 다른 정치적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지에 명분을 줄 수 있다”면서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제 기자

‘선교적 교회, 왜 존재해야하는가’ 교협 주최 인터페이스 세미나 성료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엘리사)가 주최한 지역교회 선교를 돕기 위한 인터페이스 선교적 교회세미나가 지난 22일 리빙교회(담임목사 곽재경)에서 열렸다.

목회자 및 평신도 선교 리더 참가자 33명과 5명의 조력자들이 함께 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와 선교적 교회에 대해 나눔을 갖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는 카이로스 훈련을 받은 김대영 목사(헬로교회 담임)가 헤드 퍼실리테이터가 되어 조력자로 참여해 스몰그룹에서 1과 ‘선교, 성경, 하나님의 백성’을 소개하며 “세미나가 선교적 교회의 그림을 그리는데 큰 도움을 주어 헬로교회 모든 셀그룹 리더들이 참여하도록 했다”면서 “선교는 규모에 상관없이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리빙교회 박경화 사모는 “하나님이 선교적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었다”는 세미나 후기를 밝혔다. 이날 지역 교회 목회자 부부와 선교리더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콜린(Colleen B. Di Raddo, Ph.D) 내셔널 디렉터는 “심플리 모발라이징 사역을 통해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어린양 보좌 앞에서 열방과 함께 예배하는 날을 꿈꾸고 실천하자”고 도전했다.

박엘리사 회장은 “열린문 장로교회 선교위원회의 후원으로 선교적 교회를 향한 세미나가 열리게 되어 감사하며 연합 사역으로 선교의 기회가 많아 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윤미 기자

H마트, ‘우버’와 파트너십 체결

미주 최대 아시아 마켓인 H마트가 우버(Uber Technologies, Inc.)와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했다. H마트 측은 “이번 파트너십은 본사의 혁신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전역의 고객들은 우버 이츠(Uber Eats) 앱을 통해 ‘문 앞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우버 총괄자인 베릴 샌더스 사장은 “미국의 아시아 식품 유통의 선두주자인 H마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 전역의 고객들에게 아시아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H마트는 우버 이츠(Uber Eats) 입



점을 기념해 할인 프로모션 코드도 제공한다. 우버 이츠(Uber Eats) 이용자들은 ‘HMART50’ 할인 코드를 사용해 50달러 이상 주문 시 최대 50%(최대 \$3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버 원(Uber One) 회원은 35달러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과 5%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H마트는 우버 다이렉트(Uber Direct)를 활용하여 웹사이트 온라인

주문에 대한 당일 배송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H마트.com 자체 채널을 통한 판매에 대해 우버의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주문 당일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H마트 브라이언 권 사장은 “우버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원활하고 편리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고품질의 제품을 고객의 집 앞까지 간편하게 배송하여 H마트에서의 쇼핑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의 노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문의: 800-648-0980(H마트 온라인 주문 고객 서비스 센터) 김윤미 기자

‘한시 판매’ 5달러 세트 메뉴 맥도날드 판매기간 연장키로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매장에서 한시적 기획 상품으로 내놨던 5달러 세트 메뉴의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블룸버그 통신의 지난 22일 보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공지문에서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5달러 세트 메뉴 판매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93% 이상의 점포가 찬성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맥도날드는 대다수 점포

를 대상으로 5달러 세트 판매 기간을 8월까지로 한 달 연장할 방침이다.



맥도날드는 점포 공지문에서 “5달러 세트 메뉴가 고객들을 맥도날드 점포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목표를 충족시키고 있다”며 “고객 수 확대는 궁극적으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지속 적인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음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NEW	<p>스시 식당</p> <p>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SF 연매상 \$1,058,000</p>	<p>버지니아 상가건물</p> <p>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의 \$218,000</p>	<p>디시 유명 델리</p> <p>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임주 건물 1층 순수의 = 주인운영 없이 1만불</p>	<p>Beer & Wine Shop</p> <p>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p>	<p>상가</p> <p>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p>
	<p>식당 자리</p> <p>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p>		<p>사무실</p> <p>애너데일, 1200 SF 사무실, 병원적합, 35만불</p>	<p>Beer & Wine Shop</p> <p>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p>	<p>상가</p> <p>비엔나, 버지니아 상가매매 연순수의 52만불, 8백만불</p>
	<p>창고</p> <p>전기시설 완벽한 창고자리임대 9000 SF, 헌트, 버지니아</p>	<p>단독 건물</p> <p>애너데일 최고의 상권, 2500 SF 식당, 카페, 맥주 전문점하면 좋은 자리 임대 문의 바람</p>	<p>사무실</p> <p>워싱턴 디씨, 교통 좋은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찾습니다</p>	<p>콘도</p> <p>방2개, 화장실2개, 차고1개 있습니다 메트로근처, 웨그맨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p>	<p>상가</p> <p>볼티모어상업건물 (임대수입) 1층식당+2층+3층아파트, 1백11만불</p>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렌딩 서비스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업체 공장/사무실/창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사지

메넨데즈 “8월 20일 사퇴” 앤디 김 상원승계 가시화

뇌물수수 등 16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현 연방상원의원이 당내 압박에 못 이겨 다음 달 20일 자리에서 물러난다.

23일 NBC·뉴저지글로벌·폴리티코가 각각 메넨데즈의 측근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8일 자진 사퇴 보도를 한 차례 부인했던 메넨데즈가 실상은 이날 자신의 사퇴 의사를 공유하고 다음 달 20일 사퇴한다.

NBC에 따르면, 메넨데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등에 보낸 성명을 통해 “다음 달 20일 사퇴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뉴저지주정부는 임시승계자를 선임하는 체계적인 절차에 돌입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상원의원으로서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항소할 생각이 있지만, 상원의원으로서의 더 중요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간 뉴저지주에서 이룬 업적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연방상원 윤리위원회가 소집된 후 메넨데즈 축출 표결 관련 검토가 이어진 가운데 메넨데즈가 결국 백기



앤디 김

로버트 메넨데즈

를 들었다는 후문이다. 축출이 아닌 자진 사퇴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앞서 지난 16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그는 오는 10월 29일 판결 후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1월 본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혀 민주당 내에서 표가 분산될 것이라 우려를 샀다.

뉴욕포스트는 공화당의 경우 커티스 버쇼의 승기를 잡기 위해 메넨데즈가 최대한 오래 버텨줄 것을 바랐다고 보도했다.

메넨데즈 사퇴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임시승계직에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을 택할 경우, 김 의원이 본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기 때문이다. **강민혜 기자**

K뷰티 컨테이너 통째 도난

LV박람회 한국관 70곳 피해 “트럭기사가 보이스포싱 당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대규모 뷰티 전시회 참가를 위해 다수의 한국 기업이 보낸 전시품을 담은 컨테이너가 통째로 미국에서 도난당했다. 이에 70개 한국 기업이 전시품도 없이 전시회를 시작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22일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23일부터 25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2024 북미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 로프 전시회’에 120여 개 한국 기업이 참가한다.

해당 박람회는 볼로냐 코스모프, 홍콩 코스모프와 함께 세계 3대 뷰티 전문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나서 한국관을 꾸릴 정도로 한국 기업 및 관계기관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개막 직전인 22일 저녁까지도 상당수 한국관 부스에는 전시품이 진열되지 못했다.

한국 기업 70곳의 전시품을 담은 컨테이너가 미국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해당 컨테이너는 LA항구에서 전시회장이 있는 라스베이거스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컨테이너 트럭 운전사가 ‘전시회장에 물건 반입이 안 되니 다른 곳에 갖다 놓으라’는 내용의 보이스포싱을 당했다”고 말했다.

한국관은 전시회 대행업체인 코이



23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2024 북미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 로프 전시회’ 한국관의 한 부스가 전시품 없이 운영 중이다. 해당 부스를 운영 중인 한국 기업은 이번 컨테이너 도난 사건으로 전시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독자 제공】**

코와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가 나누어 주관했는데 피해를 당한 업체는 모두 코이코가 지정한 물류업체를 이용했다.

물류업체 관계자들은 컨테이너 도난 경위를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NGL트랜스포테이션 임종성 본부장은 “물류업체 정보를 도용 또는 사칭해 하역한 화물을 항에서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가장 흔한 유형”이라며 “화물을 다른 곳에 내리라는 보이스포싱 사기 수법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난당한 컨테이너를 운반하던 트럭 운전자 개인의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컨테이너가 도난당하면서 상당수의 참가 기업이 전시품 없이 부스가 텅 빈 상태로 전시회 첫날을 맞았다. 무역협회 측은 둘째 날인 24일부터는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난 피해를 당한 70개 기업 중 약 33곳은 전시회 전날인 지난 22일 급하게 한국에서 항공편으로 전시품을 보냈고, 일부 업체는 임시방편으로 캐리어에 넣어온 소량의 물품들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회 한국관 부스 설치를 담당한 메인아치 임종환 대표는 23일 “군데군데 비어있는 부스도 있긴 하나, 한국 뷰티 산업의 명성 때문인지 많은 인원이 한국관을 찾고 있다”며 “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가져온 샘플, 팸플릿 등을 전시하고 부스를 운영 중”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코이코 측은 “이번 일의 잘못을 따지면 물류 배송업체의 책임이 100%지만, 해당 업체를 선정한 것이 우리이기에 전시회를 마치고 추후 배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 한국 매체를 통해 밝혔다. **김경준 기자**

를 자정이 돼야 시작했고, 팬들과 약속했던 영상통화 시간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를 주장한 김가와씨는 “21분간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이용권을 300만 원에 구매했다”면서 “하지만 주최 측 문제로 3분20초(200초)만 통화할 수 있었다. 또한 영상통화는 한 번에 10초씩만 할 수 있다고 해 매번 2분씩 대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주최 측은 이벤트 진행방식 변경도 행사 시작 직전에서야 X에 공지했다. 3분20초만 영상통화를 시켜주고 환불은 300만 원 중 205만 원만 해줬다. 주최 측이 계약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만큼 100% 환불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씨는 TAN 영상통화 이벤트가 아이돌그룹 고별행사 중 하나였던 만큼 한국, 미국, 대만 등 전 세계 팬들

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실제 틱톡에서는 영어권 팬들이 해당 영상통화 이벤트 불만을 제기하는 글과 영상을 올리며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제시가 관체코는 틱톡에 “그룹 해체를 앞두고 마지막 공식활동이라고 생각해 팬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에도 결제했다”며 “환불 과정 공지도 없고(일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영상을 올렸다. **김형재·정윤재 기자**

한인 엔터 업체 부실 이벤트 논란

〈KorUS〉

TAN그룹과 영상통화 행사 주최

한인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한국 아이돌그룹 영상통화(Video call) 이벤트를 주최했다가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 미국, 남미 등 전 세계 팬들은 주최 측이 당초 약속했던 아이돌그룹과의 영상통화 시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사기를 주장했다.

아이돌그룹 티에이엔(TAN) 팬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한국시간) 뉴욕에 소재한 것으로 알려진 코러스(KorUS) 엔터테인먼트사는 TAN 영

상통화 이벤트를 주최했다. 영상통화는 팬들이 돈을 내면 아이돌그룹과 일대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종의 팬서비스 행사다.

주최 측은 인스타그램과 X 계정에 TAN 영상통화 행사를 홍보하며 영상통화 이용권을 팔았다고 한다. TAN 서명, 앨범, 7인 멤버와 팬 영상통화, 멤버와 팬 일대일 영상통화 등 이용권은 50~500달러에 팔렸다. 영상통화 이용권은 90초 단위로 판매됐다고 한다.

하지만 주최 측은 영상통화 이벤트 당일 오후 8시 시작하기로 했던 행사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세계 유일 '한국어 마을' 미국에 오픈

미네소타 콘코디아 언어마을 아시아 언어권에서 최초로

전 세계 최대 언어 몰입교육 기관인 미네소타의 콘코디아 언어 마을(Concordia Language Villages-CLV)에서 25년 만에 한국어 마을이 오픈했다.

미네소타주 베미지 인근에 있는 CLV는 1961년 설립된 비영리 언어교육 체험 캠프로, 한국어를 비롯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어 등 15개국 언어를 가르친다.

지난 20일 CLV에서 한국어 마을 '숲속의 호수'의 그랜드 오픈이 열렸다. 아시아 언어권으로는 최초로 자체 시설이 건립된 것이다. 한옥 구조를 적용한 목조주택 4채로 구성된 한국어 마을에서 여름캠프와 주말 프로그램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CLV의 한국어 프로그램은 지난 1999년 개설됐지만, 자체 시설이 없어 러시아 마을의 건물을 빌려서 사용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열기가 높아지고 누적 방문자 수가 2000명을 넘어가면서 자체 시설 설립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그러던 중 지난 2018년 고급 핸드백 제조기업 '시몬느'의 박은관 회장과 유병안 건축가 등 한국인들의 후원으로 한옥의 조형미를 본뜬 전용 건물이 건립됐다.

이날 오픈 행사에는 한국 류수영



‘콘코디아 언어마을’ 내 한국어 마을인 ‘숲속의 호수’의 강의실에서 수강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 [숲속의 마을 인스타그램]

배우의 요리 시연, 김장완 가수의 축하 무대 등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를 비롯한 한미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CLV의 매리 마우스 코시르 대표는 “한국어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프로그램이며 대기자 명단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어 마을에는 식당과 상용 주방, 행정 사무실, 2개의 기숙사, 축구장 등이 있다.

한국어 마을은 이번 800만 달러 규모의 1단계 준공에 이어 더 많은 기숙사와 문화 활동 센터, 전통 양궁장이 있는 스포츠 센터, 한옥 스타일의 파빌리온 등을 포함해 건물 6개를 추가로 건설할 1000만 달러 규모의 2단계, 3단계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스탠퍼드대학교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교수인 다프나 주르(Dafna Zur) 교수가 총장을 맡아 한국어 마을 캠프를 총괄하고 있다.

주르 교수는 2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 명단이 점점 늘어간다. 선착순으로 등록자를 받기 때문에 기다려도 수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국어 마을은 K-12 학년을 대상으로 여름캠프 혹은 연중 실시되는 1주, 2주, 4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인이나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태권도, 부채춤, 서예, K팝 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정보·등록: www.concordialanguagevillages.org/languages/korean 장수아 기자

과학 필수과목 제외 ACT 개편 응시 시간 3시간서 2시간으로

대입 자격시험인 SAT가 올해부터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 가운데, 내년 봄부터는 또 다른 대입자격 평가시험 ACT의 시행 방식도 개편된다.

먼저 필수 시험 영역이 줄어든다. 내년 봄부터 과학 섹션은 선택 과목으로 변경돼 필수 시험 영역은 영어와 수학, 독해 등 3과목이 된다. 시험 시간도 1시간 짧아진다. 기존 3시간이었던 응시 시간은 2시간으로 축소되며, 영역별 문항 수도 줄어 전체 시험 문제 수는 총 44개 적어진다. 독해 지문 길이도 짧아진다.

ACT 대변인은 “이러한 변화로 시험 비용이 저렴해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확한 금액 변동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

재닛 고드윈 ACT 최고경영자는 “학생들 개개인에 더 적합한 시험을

제공하고 응시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CT는 ▶영어 ▶수학 ▶독해 ▶과학 ▶작문 등 5과목으로 구성된 시험이며, 이중 ‘작문’은 2005년부터 선택 사항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과학’까지 선택 사항으로 변경되며 필수 과목이 3과목이 된 것.

ACT는 SAT와 함께 고교생들의 대학 입학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양대 시험으로 인정받아왔고, ACT는 그동안 4과목 점수를 모두 합한 후 다시 4로 나눠 종합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해왔다. ACT의 각 과목은 모두 36점 만점인데, 고드윈은 “그동안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과학 과목을 빼도 종합 점수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자동차업체들 대대적 할인 공세

공급 증가에 수요 감소

자동차 수요가 줄자 제조업체들이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가격할인과 할부금융 금리 인하 등 각종 소비자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다.

‘비싼 차’로 인식되던 전기차의 경우 할인 폭이 더 큰 상황이다.

지난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와 딜러들이 수요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 모터 인텔리전스 집계 결과 지난 6월 신차 판매 때 제공된 평균 인센티브 패키지는 작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현대자동차와 제너럴 모터스(GM), 폭스바겐 등이 차량 가격 인하와 현금 보상, 할부 금리 인하 등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JD 파워에 따르면 올해 권장 소비자 가격 이상으로 판매된 신차 비율이 16.9%에 불과했다. 작년의 34.9%에서 대폭 줄어든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스티븐 주노 이코노미스트는 “공급 증가와 수요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6월 신차 가격은 0.4%, 중고차 가격은 1.5% 하락했다.

리서치업체 카구르스의 매트 스티스 애널리스트는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입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차를 사야 할 때는 높은 금리 때문에 조금이라도 싼 차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신차에 대한 4년 할부 금리는 지난 5월에 연 8.65%로, 2001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기차의 경우 가격 인하 폭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더 크다.

올 상반기 판매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5개 차종 중 4개 차종이 전기차였다. 쉐보레 블레이지와 폭스바겐 ID.4 SUV가 이에 포함된다.

“한인 여목사·가족 괴롭힘 멈춰 달라”

일리노이주 한 시골 마을에 부임한 한인 여성 목회자와 가족이 인종차별에 시달리자 교회가 주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연은 지난 22일 지역 매체인 ‘더시티닷컴’에 연합감리교단(UMC) 소속 모리스 연합감리교회 직원 교구 위원회가 호소문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케시포스 등이 교회 위원회 관계자 6명은 호소문에서 담임인 강선아(사진) 목사와 가족을 동네 주민들이 보



호해달라고 당부했다.

호소문에는 “2년 전 목사님과 가족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며 “안타깝게도 이들과 어린 자녀가 1년 반 동안 한 중학생 그룹으로부터 괴롭힘, 욕설 등을 통해 모욕을 당해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회 관계자들은 지역사회가 강 목사 가족에 대한 괴롭힘 등을 즉시 중단하고 가해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멈출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모리스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은 호소문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괴롭힘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이 훼손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에게 존중심을 보여달라고 부탁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본지는 23일 강 목사와 교회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최준호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투자 · 상업투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우크라 외무장관 “러시아와 협상 원하고 준비 중”

중국을 방문 중인 드미트로 콜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24일 러시아와 대화와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이 광저우에서 콜레바 장관과 만나 회담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콜레바 장관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화·협상을 하기를 원하고 준비 중”이라며 “당연히 협상은 마땅히 이성적이고 실질적 의미가 있어야 하며, 목적은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의 실현에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협상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다양한 수준으로 보았다”며 “조건과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지만, 중국은 평화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휴전과 평화회담의 재개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콜레바 장관과 왕이 부장의 회담은 3시간 이상 이어졌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23일부터 25일까지 콜레바 장관이 왕이 부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다”며 “러시아의 침략을 멈추는 방안과 항구적이고 정당한 평화를 달성하는 데 중국의 가능한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논의의 주된 주제가 될 것”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24일 드미트로 콜레바(왼쪽)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24일 중국 광저우에서 왕이(오른쪽)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사이트 캡처)

말했다.

앞서 콜레바 장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광저우 영상을 올리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된 후 우크라이나 고위직의 첫 번째 중국 방문”이라며 “2012년 이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의 첫 번째 방문”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각종 평화 방안 사이의 경쟁을 피해야 한다”며 “키예프와 베이징 사이의 직접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11월 제2차 우크라이나 평화정상회의를 개최 계획을 밝히면서 러시아를 초청해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평화회의는 우크라이나의 제안으로 성사된 합의체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 러시아와 중국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러시아 측은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 메시지는 우리 입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 측은 결코 협상을 거부한 적이 없고 협상 절차에 열린 태도를 유지해왔다”며 “아직 모르는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페스코프 대변인은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언급한 휴전협상 가능성에 “어떤 어조로든 대화를 이야기하는 편이 마지막 우크라이나인까지도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반색했다.

러시아와의 협상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의 기류 변화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2020년 대선에서 재선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하면 내년 1월 취임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포기하는 방식의 종전 협정을 압박할 것이라고 보고 우려하고 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전기차 끝장낸다”더니... 머스크와 친해진 뒤 확 바뀐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기차에 대한 입장이 이전보다 부드러워졌다.

다시 대통령에 뽑히면 취임 첫날 조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기차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가까워진 이후 전기차에 대한 발언도 달라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3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전기차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전기차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다.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차를 몰아봤는데 정말 훌륭하다. 그렇지만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나는 일론 머스크를 사랑한다”고 했다.

NYT는 이같은 태도 변화는 지난 3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스크를 만난 후부터 시



일론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

작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전기차를 조롱하는 시각을 유지해왔다. 전기차는 중국에서 만드는 것으로, 너무 비싸고 멀리 가지도 않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올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의 신뢰도와 가치를 공격하기보다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위한 환경 규제를 공격하는 쪽으로 논점을 바꾸었다.

머스크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자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를 포함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종종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대한 질문에 “나는 설득력이 있다”고 답했다. **이혜준 기자**

“헬로키티, 고양이 아닌 어린 소녀다” 산리오 측 주장에 “믿을 수 없다”

올해 탄생 50주년을 맞이한 일본 캐릭터 회사 산리오의 대표 캐릭터 ‘헬로키티’(Hello Kitty)의 정체가 고양이 아닌 사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산리오의 마케팅·브랜드 관리팀 총괄 부사장 질 코흐는 지난 19일 뉴욕포스트, NBC방송 등을 통해 “헬로키티는 고양이 아닌 어린 소녀”라고 밝혔다.

헬로키티는 영국 런던의 교외에서 쌍둥이 언니와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만려묘와 반려 햄스터를 키우고 있는 어린 소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세모난 귀와 가늘고 긴 수염의 둥그랗고 흰 고양이 얼굴인 헬로키티가 사람이라는 주장에 일각에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실제 산리오는 헬로키티가 고양이라고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 헬로키티는 지난 1974년 빨간색 동전 지갑에 새겨진 모습으로 처음 등장했다. 당시 산리오는 ‘키티 화이트’라는 본명

과 함께 “밝고 상냥한 여자아이”, “쿠기를 만들고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한다”, “피아니스트와 시인이 되는 게 꿈”이라는 부연 설정을 추가했다.

‘헬로키티의 정체는 고양이 아닌 다’라는 주장은 탄생 40주년이

었던 지난 2014년에도 나왔다. LA타임스는 진행자였던 크리스틴 야노 하와 이대 인류학과 교수가 헬로키티 전시회 개막 행사 리허설을 하던 중 헬로

키티를 ‘고양이’라고 언급하자, 산리오 관계자들이 “헬로키티는 고양이가 아니라 어린 여자아이”라면서 “네 발로 걷는 모습으로 그려진 적이 없다. 두 다리로 걷거나 앉으며 반려동물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발언으로 당시 캐릭터 업계와 팬덤이 술렁였다. 또 다른 유명 캐릭터로 알려진 ‘스누피’의 연재만화 ‘피너츠’도 “스누피는 개”라며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지혜 기자**



해상풍력 덕에 영국실 재산 수익 2배로 급증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소유한 왕실 재산 운영재단 ‘크라운 에스테이트’가 해상풍력 발전 덕에 수익을 전년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렸다.

24일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크라운 에스테이트는 2023~2024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재정 보고서에서 11억파운드의 이익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4억4천260만파운드의 배 이상이고 사상 최대이기도 하다.

크라운 에스테이트는 런던 시내 중심구역 리젠트 스트리트와 세인트 제임스 지구 등지의 부동산, 윈저성 주변 윈저 그레이트 파크 외에도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해저’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록적 수익은 해상풍력 단



버킹엄궁 발코니에서 인사하는 왕실 가족들

지 임대 사업 덕분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해역에는 발전용량 약 15GW의 해상풍력 단지가 설치돼 있다. 영국의 203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해상풍력은 중요한 부분으로 지난해에는 영국 발전량의 17%를 차지했다.

크라운 에스테이트가 낸 수익은 모두 재무부로 넘어가며 왕실은 그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받는다. 교부금 비율은 2023~2024회계연도

엔 25%, 2024~2025회계연도엔 12%로 정해졌다.

2024~2025회계연도 왕실 교부금 총액은 3년 연속 8천630만 파운드에 유지됐다. 기후변화 대응은 찰스 3세의 지속적인 관심사 중 하나다.

왕실은 다음 회계연도에 국왕 전용차 벤들리 두 대를 바이오연료로 전환하고 향후에는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회계연도에는 윈저성에 처음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으며 버킹엄궁의 가스 랜턴을 전기 설비로 교체하고 있다.

다음 회계연도에는 헬기 2대를 교체할 계획인데 지속가능한 항공유 사용을 늘리기로 했다. 헬기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마이클 장

맞춤 융자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시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마이클 장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JUL. 25th - JUL. 28th, 2024

여름철 빨간 비타민

점보

워싱턴 빨간체리

Washington Red Cherry (Jumbo)



LIMIT
6 LB
PER PERSON
목/금/토/일 한정
THU/FRI/SAT/SUN
LIMITED TIME OFFER

~~\$4.99~~

\$1.99
LB



관심증 오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 품절 또는 수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GRAND OPENING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erling, VA
30 Popcorn Hill Dr., Sterling
VA 20155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oa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955 Minerva Ct.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50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80 Fairwell Hunt Plaza
Ashburn, VA 20147

Herndon, VA
4901 Elden Street
Herndon, VA 20170

Elkott City, MD
6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kott City, MD 21040

Catonsville, MD
6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1902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엔데믹 웨딩’이 출산율 끌어올려... “올 0.7명대도 가능”

(합계출산율)

한없이 추락하던 월별 출생아 수가 최근 두 달 연속 반등하며 ‘저출생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1만9547명으로 1년 전보다 514명(2.7%) 증가했다. 지난 4월(2.8%)에 이어 두 달 연속 ‘플러스’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증가한 건 2015년 10~11월 이후 약 8년6개월 만이다.

전년 동월 대비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2022년 9월 반짝 증가세(0.1%)로 전환됐지만, 이후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올해부터는 바닥을 찍고 반등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은 5월 출생아 수가 증가한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우선 기저효과다. 지난해 5월 출생아 수는 1만9033명으로 같은 달 기준 처음으로 2만 명대를 하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2022년 8월부터 1년여간 이어진 혼인 증가세도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위축됐던 혼인 건수는 엔데믹이 본격화된 2022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한 이후 이듬해 3월까지 적게는 0.6%, 많게는 21.5%까지 상승하며 내리 ‘플러스’를 기록했다. 결혼 후 첫째 아이 출산시각이 소외되는 기간이 평균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혼인 증가세의 여파가 이제 슬슬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풀이다.

이런 인구동향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신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혼인 건수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이다. 5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3712건(21.6%) 늘어난 2만923건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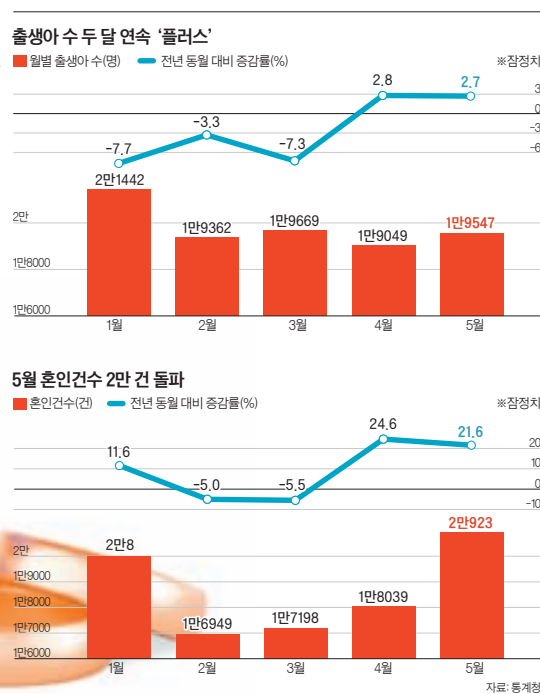
고개 드는 ‘저출생 바닥론’

베이비붐 세대 자녀 ‘91~96년생’

숫자 많은데 본격 결혼 적령기

코로나 후 혼인 증가, 기저효과도

일각 “출산율 1명 넘어야 의미”



타났다. 4월(24.6%)에 이어 2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5월에 혼인 건수가 2만 명대를 넘어선 건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기저효과가 나타난 부분이지만, 결혼 적령기로 분류되는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점과 정부의 신혼부부 지원 정책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당초 전망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당초 통계청이 예상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이다. 1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을 기록하면서 암울한 전망이 커졌지만 4·5월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결혼·출산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율이 상승 추세라고 확인하기는 이르

다”면서도 “하반기 지표가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소폭 증가하면 0.7명대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올라서기 위해선 연간 출생아 수가 최소한 22만 명대 중반을 기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이었을 때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 명이었던 데 비하면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9만9069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2960명 적지만 6~12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12만7942명)만큼만 나온다면 총 22만7011명으로 22만 명대 중반을 넘어설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이성용 한국인구학회장은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팬데믹 때 미뤄진 결혼·출산이 재개되고 있는 점과 1990년대생 인구 규모가 커진 영향”이라며 “출생률 반전 모멘텀이 형성됐다고 보기 이

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합계출산율이 반등한다고 해도 0.7명대다. 적어도 1명대는 넘어야 의미가 있다”며 “이 정도의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결혼·혼인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건 긍정적 신호다. 특히 ‘초혼’의 증가가 전체 결혼 증가를 이끌고 있다. 초혼의 반등은 특히 향후 출생아 수 증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혼을 주로 하는 연령대에 ‘एको붐 세대(1991~96년생·베이비붐 세대의 자녀)’가 진입했고, 미뤄진 결혼에 나서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지금이 저출산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엔 결혼시장 예약도 더 치열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남자의 초혼 건수는 4만62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늘었고, 여자의 초혼은 4만5268건으로 2.5% 증가했다. 재혼을 포함한 전체 혼인 건수는 0.4% 늘어난 데 그쳤다. 그동안 결혼하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부부의 삶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초혼 증가 흐름은 지난해 초부터 계속되는 중이다.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2023년 1분기 남자 초혼은 전년 동기 대비 20.3%, 여자 초혼은 20.5% 늘었다. 이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선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에코붐 세대가 결혼 연령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97세, 여성은 31.45세(2023년 기준)로 현재 91~93년생이 여기에 해당한다. 당시 출

생아 수가 70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또래 연령대보다 숫자가 많다. 결혼을 고민할 나이에 있는 사람 자체가 많다. 이 때문에 에코붐 세대가 저출산 반전의 마지막 기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영일 과장은 “30대 초반의 인구도 늘어난 데다 혼인율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지자체 신혼부부 지원정책도 영향을 올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신혼부부 지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초혼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 페널티는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청약·대출 등에서 오히려 미혼보다 불리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근로장려금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높였다.

또 과거 주택 청약에서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했지만, 올 3월부터는 신혼부부·출산 가구의 경우 부부가 모두 당첨되더라도 한 명의 당첨 효력을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최근 지자체 중 혼인 증가율 1위를 달리는 대구(5월 전년 누계 대비 19.6% 증가)의 경우 신혼(예비)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간 최대 320만원까지 지원하고, 올해 예식 비용 1000만원 이하의 ‘작은 결혼식’을 올린 부부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결혼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종=이우림·임성빈 기자

오물풍선에 용산 뚫렸다

대통령실 “실시간 감시, 심각성 인지”

합참, 오염 확산 우려 공중격추 안해

북한 오물 풍선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내에 떨어졌다. 북한이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 도발을 시작한 이후 대통령실 구역에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합동참모본부와 공조해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을 모니터링하던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며 “화생방 대응팀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과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업무 공간에 북한에서 보

낸 낙하물이 떨어진 만큼 대통령실 경비와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의 경우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면서 “풍선에 어떤 물질이 들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물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할 경우 내용물이 공중에서 흩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격추 대신 낙하 후 수거하는 매뉴얼을 유지하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7시쯤부터 오물 풍선을 띄워 보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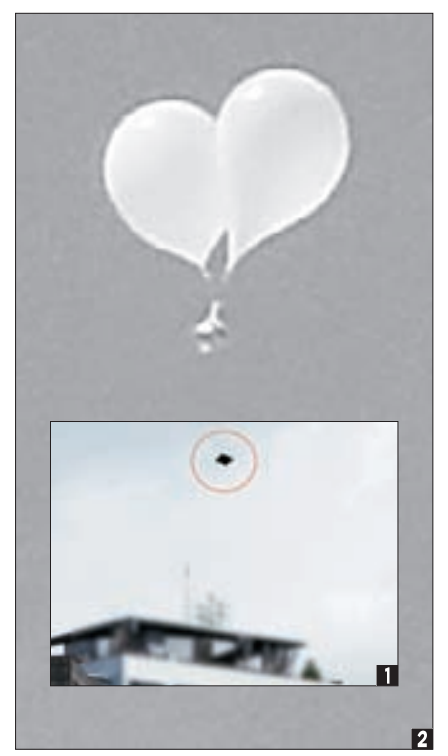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 앞서 24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오물 풍선 부양 외에)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풍선을 띄우는 장소에 총격이나 포격을 가할 가능성도 있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6일 한국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통해 대응 방식의 변화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6일 담화에서 “대북 전단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한국 쓰레기들의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군은 지난 20일부터 전방 지역에서 전

면적으로 진행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나눌때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은 최근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통해 ‘지 지 지’ 하는 소음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북 방송을 주민들이 듣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허진·서유진 기자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 북한이 부양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풍선이 낙하하고 있다. 1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에서 군 장병들이 오물풍선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다. [뉴스1·뉴스1]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안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우메켄 NEW 아이클리어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 넣은 우메켄 NEW 아이클리어를 추천합니다"



정미란 안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한국 소아안과학회 (KAPOS) 정회원
한국 백내장굴절수술연구회(KSCRS) 정회원
미국 백내장굴절수술연구회(ASCRS) 정회원
미국 안과학회(AAO) 정회원

- 은행잎 추출물
- 자색 고구마
- 비타민 A
- 루테인

- 마키베리 추출물
- 포도씨 추출물
- 제아잔틴
- 빌베리 추출물

온가족 눈 건강 지킴이

아이클리어(정)



개별 PTP 포장

- 산소와 열로부터 보호
- 위생적인 개별포장
- 간편한 휴대성

소중한 눈도 믿을 수 있는 우메켄에서 지켜드립니다

- 눈 노화, 안구 건조증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피곤한 눈을 지켜주는 최적의 보충제
- 눈의 영양 공급이 필요한 어린이부터 눈 노화 집중 케어를 원하는 시니어까지

눈 건강개선 특수 성분 8가지 함유

- 루테인 • 제아잔틴 • 빌베리 추출물 • 마키베리 추출물
- 포도씨 추출물 • 자색고구마 분말 • 은행잎 추출물 • 비타민 A

출시 기념 행사

▶ 7월 28일까지

아이클리어 구매 시 씨멤런스(\$39) 무료 증정
같이 드시면 항산화 효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드세요

- 일상생활에서 침침한 눈으로 자주 불편함을 느끼는 분
- 스마트폰, TV, 컴퓨터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
- 노화, 스트레스, 유전적인 요인으로 황반변성 위험도가 있는 분
- 사물을 바라볼 때 편안하지 않고 흐리게 보이는 분
- 안구건조증 및 눈 노화의 집중 케어를 원하시는 분
- 눈의 영양 공급이 필요한 어린이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센강 6km '수상 개회식' ... 수백척 배로 선수 입장

경기장 아닌 곳에서 개회식은 처음 루브르·에펠탑 등 명소 지나가 30만명 개회식 '직관' 사상 최대 외신 "128년 역사 올림픽 명장면"

27일 오전(한국시간) 개막하는 2024 파리 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장소에서 개회식이 열린다. 스타디움이 아니라 센강이 개회식 장소다. 각국 선수단은 배를 타고 파리의 상징인 센강 위에서 '선상 행진'을 하며 개회식에 참가한다. 각국 선수단이 수백여 척의 배에 나눠 타고 센강을 가로지르는 명장면이 펼쳐진다.

AP는 이를 두고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1896년 이후 128년이 지났다. 33회째 올림픽을 맞았지만, (올림픽이) 여전히 신선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칭찬했다.

각국 선수단은 배를 타고 파리의 식물원 근처 오스테르리츠 다리를 출발해 에펠탑 인근 트로카데로 광장까지 6km 구간을 이동한다. 이 센강의 양쪽으로 노트르담 대성당과 파리시청,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콩코르드 광장, 그랑팔레 등 명소들을 두루 지나 에펠탑 인근에 도착하는 코스다.

스타디움이 아닌 개방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개회식이라서 관중 수도 역대 올림픽 중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의 관중 수용 규모는 10만 명을 넘기 어렵지만, 센강을 따라 6km 구간에서 진행되는 파리 올림픽 개회식은 3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직접 관람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0만 명은 강변 유료 관중석에서 개회식을 지켜볼 예정이다.

개회식은 현지시간으로 26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한다. 최근 파리의 일몰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이 27일 오전 2시 30분(한국시간) 열린다. 사진은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 인근에 설치된 개회식장 모습. [사진 파리시청]

시간은 오후 9시 30분 전후다. 선수단 입장이 끝날 때쯤이면 주변이 어두워지면서 야의 조명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입장하는 나라는 그리스다. 1896년 제1회 근대 올림픽 개최국자

격으로 가장 먼저 입장한다. 한국 선수단은 육상 높이뛰기 우승자(28)와 여자 수영의 김서영(30)이 가수를 맡는다. 세계적인 스타들도 개회식을 빛낸다. 미국의 '힙합 대부'로 통하는 래퍼 스눕독(53)이 개회식 전 마지막 구간의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다. 팝스타 셸린 디옹(56)과 레이디 가가(38)가 개회식에서 공연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미국 NBC는 "레이디 가가와 셸린 디옹이 최근 프랑스에 입국해 파리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파리=피주영 기자

2030 겨울올림픽 프랑스 알프스 개최

2034년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2030년, 2034년 겨울 올림픽 개최지로 프랑스 알프스 지방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가 각각 선정됐다. 프랑스와 미국은 각각 6년의 사이를 두고 여름 올림픽에 이어 겨울 올림픽까지 개최하게 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팔레트콩그레에서 142차 총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프랑스 알프스는 88표 중 84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는 89표 중 83표를 각각 받아 2030년, 2034년 겨울 올림픽 개최지로 가결됐다.

프랑스의 경우, 알프스산맥에 자리 잡은 프랑스 영토인 오베르뉴론알프와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지역이 연합해 2030 겨울 올림픽을 연다. 다만 IOC는 최근 의회 선거의 영향 등으로 필요조건인 프랑스 정부의 재정 보증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프랑스 알프스 지역의 겨울 올림픽 유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IOC가 정한 기한 내에 겨울 올림픽 보증 절차를 완료해야 개최 협약이 이뤄진다. 총리의 서명 보증은 10월 1일까지, 의회의 총리 서명 보증은 2025년 3월 1일까지다. 프랑스는 26일 시작되는 파리 여름 올림픽을 마치고 6년 후 다시 겨울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다. 이번이 1924년 샤모니, 1968년 그르노블, 1992년 알베르빌에 이어 4번째 개최다. 한지혜 기자

총수들 파리 집결 '비즈니스 올림픽'

오는 26일(현지시간) 파리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재계 총수들이 속속 프랑스 파리로 모인다. 국내 주요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선수단을 후원하며 힘을 싣고 있는데 총수들도 현장을 찾아 태극전사를 응원하며 마케팅 효과를 노리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파리올림픽 현장을 찾은 예정이다. 이 회장은 선수단을 응원하는 한편 신제품인 갤럭시 Z 폴드6·Z 플립6 마케팅 현장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다. 지난 10일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연 삼성전자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와 올림픽 선수촌 등 4곳에서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운영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는 전 세계 올림픽 참가 선수 1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나눠주고 있다. 이는 갤럭시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최초의 올림픽 에디션으로,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언어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매개체가 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IOC와 협력해 선수들이 시상대 위에서 직접 촬영할 수 있는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그동안 올림픽 시상식에서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를 포함한 개인 소지품 반입이 금지됐는데 이번 협력으로 선수들이 '시상대 셀피'를 직접 남길

수 있게 됐다. 대한양공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도 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파리를 찾았다. 올림픽·아시아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양공 선수단을 지원해 온 정 회장은 이번에도 직접 파리에서 현장을 챙기고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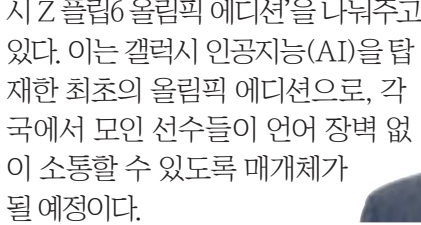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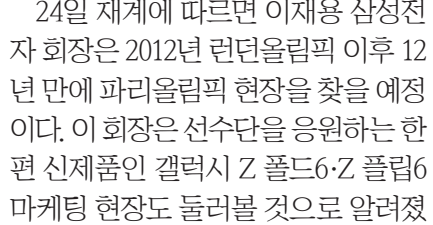
현대차그룹은 한국 양공의 세계 최강 수성을 위해 AI와 증강현실(AR) 등 최첨단 훈련 기법 도입을 지원해 왔다. 이번 파리올림픽을 위해서는 '슈팅 로봇'과의 대결을 진행하고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한 훈련 시설과 휴게 시설 등도 조성한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파

리올림픽 방문 계획이 없지만, 지난 5월 여자 핸드볼 대표팀을 위커힐 호텔로 초청해 만찬을 대접했다. 여자 핸드볼은 단체 구기 종목 중 유일하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다.

하창 시절 핸드볼 선수이기도 했던 최 회장의 '핸드볼 사랑'은 유명하다. 2008년 대한핸드볼협회장에 취임한 이후 2011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핸드볼 전용 경기장을 지어 기부했다. SK 그룹은 이번 올림픽에서 핸드볼과 펜싱 종목을 후원하고 한국 수영 간판인 황선우 선수를 비롯해 역도 박혜란 선수, 브레이킹 흥텐(김흥열) 선수를 후원하고 있다.

최선을 기자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진료 내용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보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시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센터빌, 첼트리 지역]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아기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동물 사진 | 기념일 사진

한국에서 유명한 셀프포토 스튜디오가 6월에 센터빌 오픈했습니다!

“나만의 방 안에서 그 누구 눈치 안보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환영합니다”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www.Selfotostudios.com

온라인 예약

사직 전공의 7600명 ‘구직 대란’... “지원자 많아 급여 반토막”

병원 복귀 대신 개원가 취업 시도
피부와·요양병원 등 경쟁 치열
“월급 1200만원→300만~400만원”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 처리된 가운데, 이들 상당수는 개원가로 쏟아져 나오면서 구직난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1만3531명 중 사직 처리된 인원(임용 포기 포함)은 7648명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 생각이 없는 전공의들은 주로 피부·미용

관련 개원가나 요양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대개 전공의 수련(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데, 수련을 중도 포기하고 나온 전공의들이 택할 수 있는 ‘일반의’ 자리가 주로 이들 병의원에 있어서다.

하지만 한정된 일자리에 구직자가 몰리면서 경쟁은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A씨는 “나는 일찍 사직 처리돼 피부과 취직에 성공했는데, 면접 볼 때마다 ‘이력서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는 말을 들어 조마조마했다”면서 “다시 수련병원

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피력해야 면접에 합격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인력 공급이 늘면서 급여는 평상시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시내의 한 피부과 개원의 B씨는 “원래 피부과 페이닥터(봉직의)로 주 5일 근무 기준 월급 1200만원 정도에 채용됐다. 하지만 요즘은 전공의 지원자가 넘쳐나면서 월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주로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미용병원은 월 400만원만 받고 일하려 해도 자리가 없다”, “이력서를 수백 장 넣었는데, 면접 오라고 한 곳은 2~3곳

뿐” 등 구직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다만 야간 당직 의사를 구하기 어려웠던 요양병원들은 내심 시장에 나온 전공의가 반가운 분위기다. 또 해외 미용 환자를 주로 받는 강남 성형외과 개원가에서도 낮은 급여로 전공의들을 대거 채용해 ‘영업 확대’를 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일본 등 해외 의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거나, 군 복무를 기다리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휴일·야간 수술, 응급 진료 수가 인상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병원의 원환산지수 결정, 건보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등을 의결했다. 병원의 휴일·야간 수술료가 늘어나고, 응급실 진료 보상도 확대된다.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의원보다 병원 ‘월수료’ 중심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야간·공휴일에 병원에서 이뤄지는 수술·처치·마취료의 가산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의 가산율도 50%에서 150%로 오르게 된다.

남수현·정종훈 기자



오늘 ‘중복’ - 체감 33도 폭염 계속 24일 대구시 중구 달성공원에서 불곰이 채소를 얻린 간식을 먹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광주광역시 말바우시장 한 생닭 판매점에서 닭이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다. 기상청은 ‘중복’인 오늘(25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뉴시스]

건설침체 후폭풍... 철강·시멘트 “더는 못버틴다”

PF 부실 우려, 공사비 급등 파장
미착공 대기 33만 가구... 63% 달해
골조 사장 “일감 줄어 직원 내보내”
“정부, 사업장별 세밀 대책 세워야”

초등학생 손주를 돌보는 A씨(68)는 몇 달 전 병원에서 C형간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손주에게 병을 옮길까 걱정했지만, 신체 접촉 등 일상생활에선 전염되지 않는다는 의사 말에 안심했다. 다행히 8주간 약을 먹고 완치됐다. 이처럼 C형간염은 조기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B형간염과 달리 예방백신은 없지만, 치료율 98%의 치료제가 있다. 다만 환자의 70%는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다.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시간이 흘러 만성이 되고, 간경변증에 이어 간암으로 악화할 수 있다. 간암 발생

원인의 약 15%가 C형간염이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따라 C형간염 조기 발견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이달 초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C형간염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56세가 되는 해에 C형간염 항체 검사를 받는다. 내년은 1969년생이 해당한다. 생애 한 번만 받는 방식이다.

C형간염은 혈액, 체액 등을 통해 바 이러스(HCV)에 감염돼 간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주로 오염된 주사바늘이나 문신·피어싱 등으로 감염된다. 2015년 일부 병원이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가 집단 발생한 뒤 국가 차원의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2020년 이후 환자 수는 감소세다. 하지만 간암을 유발하는 만큼 C형간염을 국가건강검진으로 걸러내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바

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에 국가검진 도입이 핵심과제로 들어갔고, 이달 확정됐다.

질병청은 검진 항체검사서 ‘양성’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의 확진 검사 비용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거 감염된 뒤 완치된 사람도 항체검사서 양성 나오기 때문에 별도 확진 검사가 필수적이다. 일부 환자는 C형간염 양성 결과를 받아도 무증상이란 이유로 치료를 소홀히 한다. 김인희 대한내과학회 정책이사(전북대병원 소화기 내과)는 “C형간염은 치료하지 않으면 바이러스 스스로 소멸하는 경우가 드물어 합병증이 되기 전에 치료하는 게 좋다”며 “나이가 어려도 주사제를 남용할 경우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검사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석유제품 수출 역대 최대... 반도체·자동차 이어 3위

(상반기 기준)

정유4사 수출액 9% 늘어난 33조
항공유 대일본 수출량 70% 급증

올해 상반기 국내 정유 4사의 석유제품 수출량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1~6월 SK에너지·GS칼텍스·에스오일(S-OIL)·HD현대오일뱅크의 석유제품 수출량이 2억4530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석유협회 통계 집계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출물량이다. 앞서 최대치를 달성했던 2018년 상반기(2억3700만 배럴) 이후 6년 만에 기록을 경신한 것이기도 하다.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해 3년 연속 증가세

다. 수출액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237억6224만 달러(약 32조9344억원)를 기록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수출액 3위를 차지했다. 석유협회는 휘발유, 항공유 등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에 국내 정유사가 가동률 증대로 대응한 영향 때문에 수출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정유업계의 가동률은 80%로 2021년 상반기의 72.6% 이후 매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석유제품 가운데 최대 수출 품목은 경유로 전체 수출량의 40%를 차지했다. 휘발유(23%), 항공유(18%), 나프타(8%)가 뒤를 이었다.

국가별 수출량 순위로는 호주(18.6%), 싱가포르(13.0%), 일본

(11.5%), 중국(9.0%), 미국(8.7%) 순으로 집계됐다. 호주는 3년 연속 최대 석유제품 수출국에 올랐다. 수출물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탈 탄소화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10년 전 정유공장을 통폐합해 정제능력과 연료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엔저 현상으로 해외 관광객이 급증해 항공유 부족 사태까지 겪으며 석유제품 수입을 늘리고 있다. 일본 휘발유, 항공유 수출량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51%, 70% 증가했다.

다만 향후 석유제품 수출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2분기 들어 중국과 인도의 석유제품 수출 증가 등으로 정세마진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윤성민 기자

‘C형간염’ 내년부터 56세 되면 국가검진

초등학생 손주를 돌보는 A씨(68)는 몇 달 전 병원에서 C형간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손주에게 병을 옮길까 걱정했지만, 신체 접촉 등 일상생활에선 전염되지 않는다는 의사 말에 안심했다. 다행히 8주간 약을 먹고 완치됐다. 이처럼 C형간염은 조기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B형간염과 달리 예방백신은 없지만, 치료율 98%의 치료제가 있다. 다만 환자의 70%는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다.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시간이 흘러 만성이 되고, 간경변증에 이어 간암으로 악화할 수 있다. 간암 발생 원인의 약 15%가 C형간염이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따라 C형간염 조기 발견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이달 초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C형간염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56세가 되는 해에 C형간염 항체 검사를 받는다. 내년은 1969년생이 해당한다. 생애 한 번만 받는 방식이다.

C형간염은 혈액, 체액 등을 통해 바 이러스(HCV)에 감염돼 간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주로 오염된 주사바늘이나 문신·피어싱 등으로 감염된다. 2015년 일부 병원이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가 집단 발생한 뒤 국가 차원의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2020년 이후 환자 수는 감소세다. 하지만 간암을 유발하는 만큼 C형간염을 국가건강검진으로 걸러내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바

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에 국가검진 도입이 핵심과제로 들어갔고, 이달 확정됐다. 질병관리청은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학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검진 도입으로 핵심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 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을 통해 2030년까지 C형간염을 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수현 기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 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각별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워싱턴 로드와 유턴 엔지니어링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러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엔지니어링+mart과 첼러리 롯데에서 각각 5분 거리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김민지 변호사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버트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aquaviwater.com



\$1만 내시고 아쿠아비 정수기를 설치하세요!

건강한 물을 월 \$22에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1 첫 달



불만족시 30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철회해 드립니다.

NO 디파짓·설치비·무상 필터교환·AS

*친구에게 추천해 주시면 비타민 샤워필터 3개(\$60 상당)를 드립니다 *

언더싱크형 정수기

미네랄수 \$22 월 (Tax 포함)

알칼리수 \$27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대리석 타공시 \$50 별도

냉·온 정수기

Refurbished

미네랄수 \$25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0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New

미네랄수 \$28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3 월 (Tax 포함)

등록비 \$50 별도
*3년 의무 사용



알칼리수

아쿠아비의 약알칼리 환원수 필터는 미네랄과 활성수소가 풍부한 물을 생성하여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물맛이 좋습니다.

무료 설치
누구나 손쉬운 필터 교체
SAVE MONEY



미네랄수 \$199

알칼리수 \$249



미네랄수 \$179

알칼리수 \$219



미네랄수 \$199

알칼리수 \$239



미네랄수 \$279

알칼리수 \$319

아마존과 월마트 온라인에서 판매중 amazon Walmart

간편 설치 비타민 샤워필터



피부 미용을 위해
비타민으로
샤워하세요!
아토피, 녹물,
염소 제거에도
좋아요.

\$20

6,000여 가정, 사무실, 식당, 교회, 병원,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 등에서 사용중
(Northside Hospital,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아틀란타 천주교회, 몽고메리 현대 중공업, 제주 사우나, 뉴저지 한인회, 뉴욕·뉴저지 전지역 파리바게트, 뉴욕중앙장로교회, 뉴욕 중앙일보 외)



워싱턴 디씨 (VA/MD)
571.677.2555
www.aquaviwater.com

뉴욕 뉴저지 201-258-3404 / 917-410-2030
776 Grand Ave., Ridgefield, NJ 07657
조지아 알라바마 404-496-6777
3741 Venture Dr., #310, Duluth, GA 30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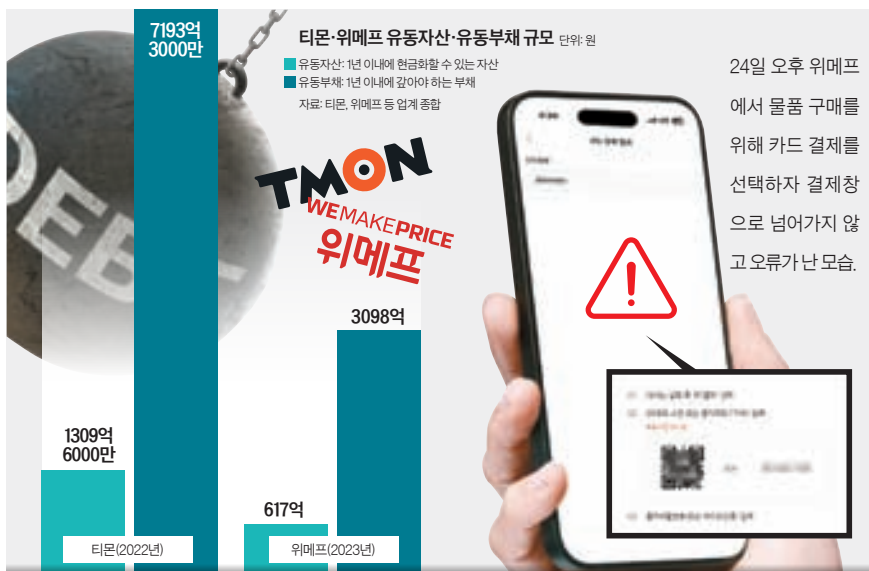
홈쇼핑·백화점·여행사·은행 ... 티몬·위메프서 줄줄이 탈출

‘이용자 900만’ 티몬·위메프 엑시트
티몬·위메프, 피해 예상액 공개 안해
입점업체, 정산지연에 철수 잇따라
금융당국 ‘현황 파악중’ 모니터링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이 운영하는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입점업체를 넘어 소비자 피해로 확산하고 있다. 판매자들은 상품 인도를 거부하고, 소비자는 플랫폼에서 결제를 취소하거나 환불받을 길이 막히면서다.

티몬·위메프의 월간 거래액은 지난 달 기준 1조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어 환불 대란으로 대규모 피해를 낳았던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태 수습을 위해 귀국한 구영배 큐텐 대표는 24일 중앙일보에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프 입점 판매자 500여 명은 정산 예정일인 지난 7일 판매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위메프 측은 17일 판매자 공지를 통해 연이율 10% 지연이자 지급, 지연 금액의 10%포인트 지급 등 보상안을 제시하고 이달 말까지 정산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지만, 위메프에 이어 티몬까지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며 입점업체의 도미노 철수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모두투어·노랑풍산·교원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은 전날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하던 여행상품 노출을 일제히 중단했다. 대금 정산이 1주일 이상 지연되자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이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25일 까지 밀린 대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9일 티몬과 위메프에서 철수했고, TV·데이터 홈쇼핑 업체들도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티몬·위메프는 아직 미정산 금액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티몬의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업종별로 정산 일정

이 다르다 보니 피해 규모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을 것이다. 중대형 업체 중에는 미수금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액이 수천억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도 티몬·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하고 나섰다. 선정산대출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고객이 은행에서 먼저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정산일에 이커머스가 은행으로 정산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 신한은행은 선정산대출 취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삼성페이 등 간편결제사도 티몬과의 거래를 차단했다.

KB국민은행·SC제일은행 등 주요 은행은 티몬·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했다. 정산금 지연 사태로 대출 상환이 불투명해지면서다. 선정산대출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고객이 은행에서 먼저 판매대금(물건을 판매한 뒤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고, 정산일에 이커머스가 은행으로 정산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플랫폼이 정산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으면 입점업체가 대신 이를 갚아야 할 수 있다. 줄도산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만일 이커머스가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 대출원은 고객의 연체율이 올라갈 수 있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고객의 추가 피해를 막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현재까지 판매자·소비자의 피해 규모는 정확하게 추산되지 않고 있다. 큐텐그룹 관계자는 “미지급된 정산대금이 얼마인지, 판매자 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액 판매자에 대한 정산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을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달 기준 티몬(437만

명)과 위메프(432만 명) 이용자 수는 869만 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공정위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표자와 주주 측에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티몬·위메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정산 금액 등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 중”이라며 “피해가 현실화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며 “한국소비자의 피해조정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공정위 소관 법령으로 제재하기는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경미·오효정·김남준 기자

여행출발 전날 비행기표 취소...가전·가구 못 받은 피해자도

소비자 ‘환불런’ 공포 확산

“티몬에선 환불해준다는 말도 없어”
온라인선 ‘구매취소 누르면 안돼’
법조계 “소보원 구제받는 게 현실적”

24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한 김모(37)씨는 항공사로부터 비행기표 예매가 취소됐다는 말을 들었다. 앞서 김씨는 가족 10명과 제주도로 5박6일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 티몬에서 110만원을 주고 항공권을 구매했다. 하지만 출발 하루 전날 여행사로부터 “티몬에서 결제한 것과 별개로 다시 11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항공사의 온라인 체크인 문자까지 받았던 김씨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공항을 찾았지만 실제로 표가 취소된 상태였다. 김씨는 “티몬에선 환불해 준다는 말도 없고 여행사는 알아서 하라고 하니 울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과 산하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 1 24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티몬 본사 모습. 2 이날 위메프 본사에는 상품을 취소당한 고객들이 항의의 방한했다.



이날 위메프 본사에는 상품을 취소당한 고객들이 항의의 방한했다. [연합뉴스, 이보람 기자]

티몬·위메프 지급불능 사태가 불거지면서 여행상품 등을 결제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티몬이 중간 판매업체에 정산 지연 상황을 통보하자, 하나투어·모두투어·교원투어 등 중간 업체들이 상품 판매·주문을 임의로 취소하면서다. 대형 가전·가구를 주문한 고객 중에도 상품 배송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티몬·위메프 등에서 구매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상품권이 취소됐다는 피해 사례

도 나왔다. 온라인에서 요기요 상품권을 7~8% 할인된 금액에 사서 앱에 등록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이른바 ‘환불런’ 공포가 커지고 있다. 환불과 백런(단 기간 대량 인출 사태)을 조합한 표현으로, 티몬 등 회사의 부도 사태로 이어질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피해자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엔 1000명이 넘게 모여

다. 피해자들은 “티몬 등에서 직접 구매 취소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는 지침을 공유하기도 했다. 구매를 취소하지 말아야 판매사로부터 결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다. 24일 참좋은여행 등 여행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위메프·티몬에 취소 및 환불을 신청하고 자사에 재결제해야 여행상품을 정상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이날부터 위메프·티몬 기존 결

제 건에 대한 카드 취소를 막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전액 복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소비자들이 구제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법무법인 정향 이승우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부분 소액이라 오히려 소송비가 더 많이 들 수 있다”며 “소비자보호원에서 개별적인 구제를 받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터질 게 터졌다’고 지적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 경쟁에 관한 법률 등 법제화 논의가 되고 있으나 여러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있다”며 “플랫폼이 소비자들로부터 대신 받은 결제대금을 유용할 수 없게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추후 비슷한 문제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만큼, 상품 판매 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소재가 어디인지를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혜연·이보람 기자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채터 7·채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채터 5·채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대통령 올 때 박수치자”... 한동훈 압승 뒤엔 9만 ‘위드후니’

한동훈 팬카페 해부

정치 관심 적었던 4060 여성 주축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앞에는 행사 시작 4시간 전부터 한동훈 대표 지지자 100여 명이 운집했다. 비웃을 입을 채 행사장 앞에서 ‘변화의 시작 한동훈’이라고 적힌 응원 도구를 흔들더니, 오후 5시 개표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행사장 입구 앞에 나란히 줄지어 섰다. 득표율 62.84%란 압승 결과가 발표되자 이들은 일제히 부둥켜안고 환호성을 내질렀다.

연차휴가를 내고 동갑내기 남편, 20대 딸과 함께 왔다는 직장인 여성 박모(48)씨는 “우리 부부는 호남 출신인데, 2년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본 뒤로 ‘인간 한동훈’을 탐구해 왔다”며 “그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구태 정치가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외치며 눈물을 보였다.

이들 상당수는 2020년 결성된 팬카페 ‘위드후니’ 소속이다. 한 대표가 범



지난 17일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지지자들이 응원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무연수원에서 속칭 ‘유배생활’을 하던 시기였다. 페이스북 페이지 그룹에서 모인 40명이 의기투합해 팬카페를 만들었고, 4년 만에 회원 수가 9만 명까지 늘었다. 한동훈 캠프 관계자는 “현장에 찾아오는 상당수는 40~60대 여성”이라고 말했다. 과거 우파 정치인에게 볼 수 없는 팬덤 현상을 몰고 온 ‘위드후니’는 과연 누구인가. 지난 17일과 23일 양일간 이들을 동행 취재했다.

위드후니 초창기 멤버가 주목한 건

문재인 정부 시절 탄압받던 ‘검사 한동훈’이었다. “잡나가던 검사가 문재인 정권에 적혀 한해 세 차례나 좌천됐는데, 옷을 벗기는커녕 의연하게 견디는 모습에 감동했다”(익명을 요구한 회원), “살아온 삶이 ‘강강약약’이라, 집단공격에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다”(53세 여성 송모씨)는 것이다.

초창기 회원 상당수는 그저 개인 한동훈을 좋아할 뿐 정치적 무관심층이었다고 한다. 55세 여성 김모씨는 “애

키우느라 바빠서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어서 ‘입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인을 둘러싸야 하는 대상으로 삼는 건 연예인 팬덤 문화와 유사하다. 전당대회 당일에는 “대통령님 들어가실 때 환하게 박수들 쳐주세요. 그 래야 두 분도 더 돈독해진다”며 “위드후니는 ‘내조’가 필요하다. 편하게 정치할 수 있게” 같은 글이 올라왔다. 『73년생 한동훈』의 저자 심규진 스페인 1세대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팬덤은 당파성보다 인물 서사에 열광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정치 팬덤과 다르다”며 “마치 ‘주인공을 지키라’는 식의 게임적 요소도 있다”고 분석했다.

상대가 흥분해 몰아붙이면 이를 역공해 상황을 뒤집는 ‘한동훈식 어법’은 보수 진영에서도 ‘설화 리스크’라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17일 TV토론에서 나 후보를 향해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위드후니 회원은 이런 화법에 열광한다. 거대 야당에 맞설 무기는 이유에서다. 팬카페에선 이를 따라하기도 한다.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만난 여성 직장인 김모(45)씨는 “한동훈은 ‘기다 아니다’가 명확한 사람”이라며 “판에 박힌 정치인의 말이 아닌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4월 총선과 전당대회를 거치며 급속도로 커진 ‘위드후니’ 덩치를 두곤 당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다. 정치 고(高) 관여층 상당수가 새로 유입되면서 일부 회원이 ‘문자폭탄’ 같은 기존 강성 팬덤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당대회 기간 중 한 대표의 당원 간담회를 소홀히 대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에겐 “OOO(진윤 핵심)가 사켜서 한 짓이나” 같은 문자폭탄이 날아들었다. 국민의힘 A의원은 “왜 한동훈 후보를 따돌리느냐” 등 항의 전화에 시달렸다. 하루 동안 발신자 불명의 전화 50여 통을 받은 A의원의 보좌진은 “이틀가량 업무가 마비됐다”고 했다.

김민정 기자

한동훈 당선 다음날... 거야, 한 특검법 법사위 심사 착수

순직 해병 특검법은 오늘 본회의 상정

우원식 “여야 변화 없다면 올릴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특검법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현재로서는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

의된 법안을 내일(25일)부터 순차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17일 여권에는 공영방송 이사진선임 중단, 야권에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인사권은 행정부 몫”이라며 중재안을 거부하자 법안 상정을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는 게 우 의장 측 설명이다.

방송4법 저지를 외쳐 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 순서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무제한 토론 종료 동의를 제출해 무력화한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요건(재적 의원 5분의 3, 180석)을 충족하는 만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시간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방송법을 1건씩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만큼 25일부터 최소 4박5일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여권 분열을 기대하고 있

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차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하는 등 ‘절대 불가’를 고수해 온 진윤계와 기류가 다르다는 것이다.

반면에 국민의힘 내부는 한 대표가 민주당의 특검법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탈표는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선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한 대표에게 수정안을 제안하자는 의견과 ‘상설특검’을 추진하자는 이야기 등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조국혁신당의 1호 당론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한 대표의 검사 및 법무부 장관 시절 제기된 고발사주 및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겨냥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추가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추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다.

강보현 기자

이진숙 부른 최민희, 꺾속말로 “나와 싸우려 하면 안돼” 기싸움

(방송위원장 후보)

(과방위원장)

청문회 첫날, 야당 정치성향 공격이 “자연인으로 한 말, 사퇴 안해”

여야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거칠게 맞붙었다.

청문회장 밖에서부터 충돌이 시작됐다. MBC 출신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론단체는 복도에서 “언론장악 청부업자 이진숙 사퇴하라”고 적

힌 피켓을 들고 이 후보자의 진임을 막았다.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 최민희(민주당)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와의 기싸움으로 청문회를 열었다. 증인 선서를 마친 이 후보자가 인사 없이 자리로 돌아가자 손짓으로 가까이 부른 뒤 꺾속말로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속삭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두고 “나라 앞날이 노랗다”고 썼다. 야당 의원들은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조인철 의원) 등의 발언으로 압박했지만, 이 후보자는 “자연인으로서 못할 말을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사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방통위 2인 체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에서 KBS와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 선임을 강행해 정치권과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고 탄핵 발의도 당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해 8월 여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됐을 당시) 임명됐다면 3인 체제가 돼 최소 재적 인원을 충족해야 불법 주장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지원 기자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왼쪽)이 이진숙 후보자에게 꺾속말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시애틀 인스티튜트 수료(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이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Periodontal Surgery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Veneer Lumineers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

주6일 프렌차이즈 \$320K
페어팩스 버지니아

주6일 Deli \$370K
몽고메리 메릴랜드

주6일 Deli \$180K
PG 메릴랜드

주6일 Deli \$250K
페어팩스 버지니아

프렌차이즈 | 카워시 | 코인런드리 | 리커 | 그로서리

703.395.3123 **FORTUNE Realty Advisors**

우리말 바꾸기

‘섭섭치’? ‘섭섭지’?

‘섭섭지’ ‘넉넉지’ 등의 단어가 나올 때 ‘섭섭지/섭섭치’ ‘넉넉지/넉넉치’ 어느 것으로 적어야 할지 헷갈린다.

‘~하다’로 끝나는 용언(동사·형용사)의 경우 준말로 쓰일 때 어간의 끝음절 ‘하’에서 ‘ㄱ’만 줄어들고 ‘ㅎ’은 뒤에 오는 음절의 첫소리와 합쳐져 ‘츠, 크, 트, 교’와 같은 거센소리가 된다. 그러므로 ‘간단하지’의 경우 ‘ㅎ’과 ‘지’가 만나 ‘간단치’가 된다.

‘단언하건대’ ‘분발하도록’ ‘당하지’도 ‘~하다’ 앞에 ‘ㄴ’ ‘ㄹ’ ‘ㅇ’이 오기 때문에 ‘ㅎ’이 줄어들지 않고 뒤에 오는 첫소리와 결합한 형태를 띤다. 따라서 ‘단언컨대’ ‘분발토록’ ‘당치’가 된다.

그러나 ‘섭섭하지’의 경우는 다르다. ‘섭섭치’가 아니라 ‘섭섭지’가 된다. ‘~하다’ 앞에 유성자음(ㄴ, ㄹ, ㄹ, ㅇ)을 제외한 무성자음(ㄱ, ㄷ, ㅂ, ㅅ, ㅈ, ㅊ, ㅋ, ㆁ, ㅌ, ㅍ, ㅎ)이 올 때는 ‘하’가 완전히 준 형태를 쓰기 때문이다.

‘넉넉하지’ ‘집착하건대’ ‘깨끗하지’ 역시 ‘~하다’ 앞에 ‘ㄴ’ ‘ㄹ’ ‘ㅇ’이 오기 때문에 ‘하’가 사라진 형태를 띤다. 즉 ‘넉넉지’ ‘집착컨대’ ‘깨끗치’가 된다.

일반적으로 ‘ㄴ’ ‘ㄹ’ ‘ㅇ’ 받침이 자주 나오면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 경우 거센소리가 아닌 ‘지’ ‘컨대’ 등으로 적는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양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운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자의 눈

‘우정의 종’과 ‘네덜란드 카리용’



장수아
LA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 포토맥 강과 워싱턴DC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산마루에는 미국의 기념물 ‘네덜란드 카리용(Netherlands Carillon)’이 자리하고 있다. 카리용이란 여러 개의 종을 음계 순서대로 달아놓고 치는 악기를 말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1960년 이 카리용을 미국에 선물했다. 제2차 세계대전과 이후 전후복구에 도움을 준 미국에 대한 감사와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전달한 것이다.

네덜란드 카리용은 높이 127피트 철제 타워 형태 안에 53개의 종이 달려있는데, 가장 작은 종은 35파운드이고 가장 큰 종(부르동)의 경우 1만2654파운드, 총 종량이 6만1403파운드나 된다. 샌피트로 엔젤스 게이트에 있는 ‘우정의 종’이 3만7478파운드(17톤)인 것을 고려했을 때, 종 무게만 약 1.5배가 더 무겁다. 종은 약 5분의 4가 구리이고, 나머지는 청동 합금으로 만들어졌다.

카리용은 설치 후 구조적 특성과 빠른 부식 등으로 인해 59년 동안 3번의 보수작업을 거쳤다. 첫 보수작업은 헌정된 지 25년도 채 되지 않은 1983년 타워의 강철 패널 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1995년 네덜란드 해방 50주년 기념으로 대대적인 2차 보수작업이 진행됐다.

그리고 2019년 12월 대규모 3차 보수작업이 이뤄졌다. 약 2년에 걸친 공사 끝에 지난 2021년 새로운 종 3개를 추가한 업그레이드된 ‘그랜드

카리용’이 공개됐다. 눈여겨볼 것은 세 차례의 보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네덜란드 정부와 커뮤니티의 행동이다. 2차 보수 때 카리용의 의미에 감명을 받은 저명한 네덜란드 사업가 그룹이 만든 재단이 주축이 되어 네덜란드 상공회의소, 네덜란드-아메리카 재단, 네덜란드 정부와 함께 당시 140만 달러를 모금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3차 보수를 추진하기 시작한 2016년에는 국립공원관리국(NPS)과 네덜란드 대사관은 카리용 복원을 위해 580만 달러 기금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당시 NPS는 400만 달러까지 지원을 약속했다. 2019년 3차 보수 공사가 시작됐을 때 NPS는 카리용의 타워를 맡아 강철판과 내부 구조에 대한 광범한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네덜란드 대사관은 종들을 네덜란드로 옮겨 수리했다. 네덜란드 카리용의 보수 과정은 ‘우정의 종’과 비교된다.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을 맞아 한미 우호의 상징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선물한 우정의 종과 종각은 지난 2013년 한차례 보수

공사가 이뤄졌지만 현재 또다시 대규모 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1차 보수 공사 당시 한국 정부는 비용 3억원(약 27만5000달러)을 지원했고, LA 한국문화원과 ‘우정의 종’ 보존위원회가 실무를 맡았다. 하지만 종각 관리 책임이 있는 LA시 정부로부터는 예산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다. 이미 한 차례 지원했으니 앞으로는 선물을 받은 쪽에서 관리 비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부처인 LA시 공원관리국은 여전히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보존 단체는 둘로 쪼개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네덜란드 카리용’의 보수 과정과는 대조적이라 쓸쓸한 마저 들게 한다. 만약 네덜란드가 한국에 카리용을 선물하고 ‘관리는 받은 쪽 책임’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정의 종’은 한국에서 제작된 만큼 보수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가진 것도 한국이다. 비록 선물로 준 것이지만 그 선물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한인 사회는 미국 정부가 관리·보존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우정의 종’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 ‘우정의 종’ 관광 객을 위한 전문 가이드 배치는 그러한 노력의 좋은 예시다. ‘우정의 종’도 ‘네덜란드 카리용’의 모범 사례를 따랐으면 좋겠다.

네트워크

그들의 전쟁 준비



한우덕
차이나랩 선임기자

예상대로였다. 공보 형식으로 공개된 회의 결과는 기존 ‘중국식 현대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음을 뿐이다. 지난주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기 3중전회 얘기가. ‘별것 없네~’라는 반응이 나올 법하다.

원래 그렇다. 3중전회는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경제 개혁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다. 공보에 숨긴 그들의 ‘미래 선택’을 읽어내는 건 우리의 몫이다. 2가지 사안을 주목하게 된다. 첫째 ‘고품질 발전(高質量發展)’과 국가 안보(안전)의 상호 연동이다. ‘고품질발전’은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는 ‘중국식 현대화’ 달성의 핵심이다. 디지털화, 스마트화 등을 통해 산업 체질을 첨단 고부가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그걸 국가 안보와 결부시켰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산업 전략을 짜고,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으로 경제 안보를 지키겠다는 의미다. 미국과의 경제 전쟁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힌다.

둘째 ‘인재강국(人才強國)’ 전략이다. 공보는 ‘교육, 과학기술, 인재야말로 중국식 현대화의 기

초이자 버팀목’이라고 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 개혁에 나서겠다는.

둘을 종합하면 이렇다. ‘미국 경제 압박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산업을 고도화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들에겐 인재 양성이 곧 미국과의 경제 전쟁에 대비하는 길이다. 3중전회가 끝나기 무섭게 중국 관영 매체는 과학기술 분야 교육 개혁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는 이미 세계 최고 수

준으로 평가된다. 학계 권위를 인정받는 ‘네이처 인덱스’는 중국이 올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과학 연구 분야 1위에 올랐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 최상위 연구기관(대학 포함) 10곳 중에서 7곳을 중국이 차지했다. 그런 중국이 아직도 부족하다며 ‘인재 강국’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공보는 모든 개혁을 2029년까지 완성할 것이라고 못 박고 있다. 향후 5년 그들은 전쟁하듯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매진할 태세다.

우리 상황을 돌아보게 한다. 고등학교 인제는 의대로 몰리고, 대학은 학과 이기주의에 막혀 필요 산업 인력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분야는 인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MBC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과학기술 관련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게 우리 정치 수준이다.

‘2029년 한국과 중국의 기술 수준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3중전회 공보를 읽으며 드는 걱정이자.

혜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0%	0.0%	53.9%	42.9%	2.3%	0.0%
매우 좋음	양호	노화 시작	주의	나쁨	매우 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기억력,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손가락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toes

발목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힘없다

피릿피릿

바닥 못누움

영치

sciatica

작골신경통

오래 앉아있지 못함

구부리기 힘들다

75°

30°

뒤로 피기 힘들다

힘이 없어 잡지 못지 못함

방아쇠

피지지 않음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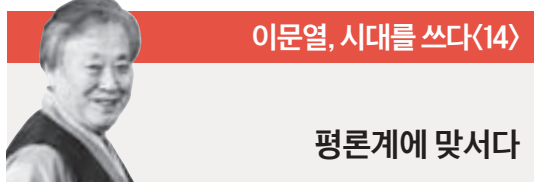
혜민한의의원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필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도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김윤식, 내 소설 비판하며 '애비는 남로당' 낙인...기가 막혔다

(전 서울대 교수·문학평론가)



이문열, 시대를 쓰다(14)

평론계에 맞서다

“모든 소설은 자전적이다. 그러나 모든 자서전 또한 소설적이다.”

나는 내 소설이 지나치게 자전적이라는 비판에 맞서 저런 경구(警句)를 만들어낸 적이 있다. 삶의 경험은 소설에 섞여들 수밖에 없다. 과거의 희미한 흔적이나 공포스러운 기억의 형태로 작가의 체험은 소설에 잔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소설이 작가의 일기장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 소설이 가족사를 우려먹는다는 식으로 몰아치면 불쾌할 수밖에 없었다.

성공하고 있으니 먹살 잡히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1980년대 말쯤이면 나는 칭찬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듣는 작가였다. 사람들은 문학과 대중성이 결합된 드문 경우라고 차켜세우면서도 『영웅시대』나 『변경』 같은 소설을 두고 ‘무이념의 이념’이라고 비판했다.

칭찬보다 비판 더 많이 듣는 작가돼

내 아버지의 월북 이후를 그린 1984년 소설 『영웅시대』에 대한 오해는 안타까웠다. 절실한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일 뿐 이데올로기적인 의도를 갖고 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주인공 이동영이 공산체제에 적응을 느낀 끝에 실존주의자로 전신(轉身)하는 내용이 1980년대 운동권들에게는 달가웠을 리 없다. 당시 대학가 운동권의 급서로 낙인 찍혔다.

나는 납득할 수 없는 비판에는 거칠게 반응했다. 문학평론가 김윤식(2018년 작고) 선생에게 들었던 일은 불측(不測)했다고밖에 할 수 없다. 한 문예지 좌담회에서 선생이 내 소설 『황제를 위하여』를 비판한 게 계기였다(1991년 문예중앙 겨울호). 선생은 『황제를 위하여』가 시민사회의 형성과 궤를 같이하는 근대 서사시로서의 ‘소설’이 아니라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재단한 다음, 그나마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진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 그리고 ‘애비는 남로당’이었다는 개념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황당무계한 이야기는 다른 데도 다 있는 것이고, ‘애비는 남로당’도 당시 남북 관계로 볼 때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문열의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고까지 했다.

나는 ‘애비는 남로당’과 『황제를 위하여』의 연결이 엉뚱하다고 느꼈다. 『황제를 위하여』는 도판서(圖版書) 『정감록』의 예언에 빠져 자신을 황제로 여기며 살다가 시대착오적인 인물에 관한 이야기다. 오히려 평론가 김현은 『황제를 위하여』가 “이문열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좋은 소설”이라며 “제왕의 도와 장자의 무위를 이상으로 제시하는 척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모순의 소설”이라고 요약한 바 있다.

김윤식 선생은 내 소설 세계 전체를 두고 접근했던 것 같은데, 『황제를 위하여』만 놓고 보면 남로당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그런데도 김윤식 선생은 『황제를 위하여』를 비판하는 자리에서 ‘애비는 남



이문열씨가 『변경』을 한국일보에 연재할 때 소설가 김훈은 문학담당 기자였다. 연재를 알리는 인터뷰 기사를 김훈이 썼다. 왼쪽부터 문학평론가 홍정선씨, 이문열씨, 김훈씨. [사진 이재유]

“황제를 위하여” 황당무계한 얘기”
김, 아픈 가족사까지 거론하며 공격
“김윤식 균형 잃은 아마추어 평론가”
나도 신문 통해 조목조목 받아쳐

1984년 낸 『영웅시대』도 오해사
어머니 “그런 여자하고 아버지를...”
출간 직후 비전향 장기수 찾아와
“아버지 팔아 출세하니 좋다” 따져

로당’이라는 내 소설의 이념적 혹은 자전적 요소를 건드린 것이다.

나는 조선일보 지면을 빌려 매섭게 받아쳤다. 선생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한 다음 균형 잃은 아마추어 평론가 같은 글은 제널리즘에 맡기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시라고 권했다.

『영웅시대』 출간 직후 이런 일도 있었다. 아버지 나이 또래, 70대 노인이 서울 서초동 집으로 찾아왔다. 『영웅시대』를 거론하며 다짜고짜 “아버지 팔아 소설책 써서 출세하니 좋으냐”고 따지고 드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비전향 장기수였다. 1953년 부부 간첩단으로 남파됐다가 붙잡혔지만 전향을 거부하고 복역한 다음 출소할 무렵 마침 『영웅시대』가 출



1 이문열씨의 1982년 장편소설 『황제를 위하여』. 2 1998년 대하소설 『변경』 12권 완간 당시의 이문열씨. 3 생전의 문학평론가 김윤식씨. 이문열씨에게 절판 상태이던 대하소설 『변경』 복간을 조건해 결국 2014년 개정판이 출간됐다. [중앙포토]

간됐던 것이다. 그의 아내가 우리와 같은 재령(載寧) 이씨 일가로, 아버지가 서울로 유학가 종로의 고동국민학교를 다닐 때 하숙하던 집의 딸이었다. 부부가 남파될 때 아버지가 간첩들의 최전진 기지인 해주 초대소의 소장이었다는 얘기도 그 노인에 게서 들었다. 부부에게 『영웅시대』는 반동적인 이야기로 비쳤을 것이다.

생전 어머니는 내 소설을 잘 읽지 않으셨다. 『사람의 아들』은 그럭저럭 읽어내셨지만 『영웅시대』는 읽다가 그만두셨다. 1985년 MBC 특집 드라마 ‘영웅시대’는 보셨다. 한 여성지가 6·25 기획으로 어머니와 나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기자가 아버지가 모델인 ‘영웅시대’ 이동영에 대한 묘사가 마음에 드셨느냐고 묻자 어머니는 이렇게 답하셨다.

“거기 나오는 그 이복 여자, 나탈리아라 그랬나, 뭐라 그랬나, 그런 여자하고 지 아버지하고 어찌 그런 식으로 해놨을꼬... 나중에 지 아버지하고 만나면 뭐라 그러겠노...”

나탈리아는 소설에서 이동영의 연인 나타사로 나오는 가상의 인물로, 모스크바 공산대학 출신인 데다 소련군 고위직과 사상의 동반자라는 배경을 활용해 동영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구출해낸다. 그 여성을 두고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다.

12권 완간하는데 12년 걸린 '변경'

12권짜리 대하소설 『변경』은 시대의 벽화가 되리라고 공언(公言)했던 작품이었다. 1986년 8월 한국일보에 주간 연재를 시작하며 당시 문학담당 기자였던 김훈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런 말을 했다.

“1950년대 후반 이후의 한국 현대사를 거대한 벽화로 그려내겠다. 나는 그 벽화 안에 내가 그럴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그려야 할 모든 것을 그려 넣겠다. 그 벽면이 너무나도 넓어서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인지 두렵고 참담할 뿐이다.”

1960년대를 배경으로 월북자의 자식이라는 원죄를 안고 태어난 4남매의 행보를 4·19, 5·16, 유신으로 이어지는 숨가쁜 흐름 안에 새겨 넣은 작업이었다. 내 문학의 한 기(期)를 걸겠노라고, 결국 12년이 걸린 이 소설이 실패한다면 내 문학이 실패하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그쳤던 작품이기도 했다.

물론 12년을 『변경』에만 쏟은 것은 아니었다. 『시인』 『선택』, 2권짜리 『오디세이아 서울』 같은 장편을 썼고 중단편도 열 편 넘게 썼다. 『평역 삼국지』를 출간했고, 『수호지』 열 권을 우리말로 옮겼다. 3년간 세종대 교수를 지냈고, 작가 사숙(私塾) 부락문원도 개원했다.

나 자신의 대책 없는 분주함 때문이었을까. 1989년 『변경』의 3부 가운데 1부 네 권의 집필을 마쳤을 때 나

는 벌써 “실패의 요건들이 나를 짓어려낸다”고 꾸짖고 있었다. 내 거친 세계 인식, 쉽게 파악되지 않는 시대의 다양성, 진행 중인 사태에 예단을 보태야 했던 모순적인 상황 같은 것들이 어렵게 느껴졌다.

자전적인 요소가 강한 데서 오는 위안은 없었다. 내 삶에 밀착된 이야기이다 보니 감흥과 열정이 절로 솟구쳤다. 그에 힘입어, 벅찬 일거리라는 점이 자명해졌지만 오히려 투지를 불태울 수 있었다. 자전성은 제약 요인이기도 했다. 전기적인 부분에 치어 소설적 상상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대하(大河)라는 미려한 양식(樣式)도 부담스럽기만 했다. 1980년대 말 외국을 다녀 보니 대하소설은 프랑스에서조차 19세기 작가 발자크 이후 사라진 양식이었다. 서구에서는 문학적 긴장을 버려 내는 한계가 두꺼운 책 세 권 정도, 200자 원고지로 3000~5000쪽 정도였다. 『변경』은 1만3000쪽이 넘는다. 고된 끝에 1990년 7월 2부를 채 끝내지 못하고 연재를 중단했다. 당시 독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해명했다.

“예술하는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노동하는 성의 또한 넉넉한 것 같지 못합니다. 높은 기생의 영등이듯 같은 자동화로 겨우 하루하루를 꾸러가면 서도 허세는 어찌 그리 많고 걸맞은 또 왜 그리 열심인자...”

결국 7년의 공백 끝에 조선일보 연재를 거쳐 1998년 12권 완간을 했지만 내 입장에서 미친 세월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2001년 책 장례식 수난을 겪은 끝에 문학과학사 판을 2004년 절판시키고 말았다.

전속 출판사 격이었던 민음사 대신 문학과학사사에서 『변경』을 냈던 것은 당시 김병의 대표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민음사 박맹호 사장은 무척 서운해했다. 10년간 죽어 있던 소설을 되살려 2014년 민음사에서 개정판을 낸 때는 공교롭게도 김윤식 선생의 조언이 결정적이었다. 소설가 이병주 기념사업회 대표를 맡고 있던 선생은 경남 하동 추모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해마다 쓸 수 있는 작품이 아니지 않느냐며 복간을 권유했다. 『변경』 4남매의 맏이인 명훈의 마지막 행적에 관한 챗터(‘그가 머문 자리’)를 추가한 개정판 『변경』은 그래서 나오게 됐다.

재미교포 이기희씨, 소설 속 경애로 구설

소설로 인한 오해는 기꺼이 해명했다. 소설에서 명훈의 연인이었던 경애는 주한미군 장교 버티워스와 결혼해 결국 미국으로 건너간다. 재미교포 화랑 운영자 이기희씨가 행적은 물론 주한미군 대령이었던 남편 이름도 버드웰스로 비슷해 경애의 실존 인물 아니냐는 오해를 샀다. 여성자들이 사실인 것처럼 써냈다. 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폭력배들의 싸움 장면이 체험인 듯 실감 난다고 평한 건 평론가 김주연 선생이었다. 나는 소설 집필을 위해 경기도 이천 출신 정치깡패 유지광을 소개받아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있다. 1986년 내가 이천으로 내려왔을 때 그는 진작에 낙향해 있었다. 싸움 장면 묘사를 위한 취재 목적은 아니었고 그 쪽 방면의 실감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데 큰 도움은 안 됐다. 그는 1988년 사망했는데 예순 넘어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종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시 설

윤석열·한동훈 화합 못 하면 공멸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새 여당 지도부와 전당대회에서 낙선한 후보자들도 함께 모인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한 대표를 잘 도와주라”고 당부했고, 한 후보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자”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각각 맥주와 콜라를 들고 리브샷도 했다. 올 초부터 계속 마찰을 빚던 두 사람이 화합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걸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롯, 현안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 차는 현격하다. 지난 23일 대표 선출 직후

윤 대통령은 여당 존중하고 건의 귀담아야
한 대표도 당분별 치유할 포용력 발휘 필요

합할 수 없다. 또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2016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체제의 경우처럼 대통령과 여당이 충돌하면 정권은 붕괴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지금은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와중이다. 윤 대통령과 108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불화라면 정권의 앞날은 밝지 않겠는가.

건전한 당정 관계를 위해선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위상을 존중하고 국정 운영에서 여당의 건의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여당 대표는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하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결정했으니 여당은 따라오라는 식은 곤란하다. 앞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개별 소통을 자주 하면서 현안의 실마리를 풀어가길 기대한다.

한 대표는 민심을 정확히 파악해 용산에 전달되게 도와주는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은 이제 본격적인 검증 무대에 올랐을 뿐이다. 전당대회에선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을 지라도 국회에선 원외 대표의 한계도 뚜렷하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버금가는 높은 비교감도 해소도 과제다. 분열의 후유증을 빨리 씻어내지 못하면 당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진짜로 한배를 탔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게 국정 성공을 위한 여권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이재명도 한동훈도 말하지 않는 것

김현기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인공지능(AI), 로봇, 불황, 고용시장에 관한 한 이들은 공통 임팩트를 갖는다.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문제인 정권의 실험적 정책인 ‘소주성’은 고용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치솟은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결국 문을 닫거나 고용을 줄였다.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일자리가 양산됐다. 한국 경제는 지금도 소주성이 남긴 불가역적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고 있다.

AI는 이미 ‘일자리 킬러’로 활동 중이다. 콜센터, 번역 프리랜서 등 일자리 감축 움직임이 현실화하는 분야가 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국내 일자리 12%(약 341만 개)가 AI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 개발연구원(KDDI)은 2030년이 되면 지금의 일자리 약 90%에서 직무 90% 이상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육체노동 일자리는 로봇과 키오스크에 빠른 속도로 잠식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다. 2022년 근로자 1만 명당 설치된 로봇 대수가 1012대, 세계 평균(151대)의 6.7배다.

잘못된 제도(소주성)와 신기술(AI)의 동시 공습은 한국의 고용시장을 심하게 일그러뜨렸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태부족한데도 단기 일자리 취업자 급증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역대급 호조를 보이는 ‘고용 착시’가 이어지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복지다. 그 일자리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데도 우리 정치는 별로 절박하지 않아 보인다. 우선 여의도 권력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연임이 확실한 이재명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정치의 화두로 제시했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을 이루고, 어떻게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방법론이 충실하지 않다. 이 전 대표는 기초과학·미래기술 투자, 재생에너지 생

산·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의 주장은 이상하게 흐른다. AI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필연적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소득·주거·교육·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과연 기본소득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나.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기업에 세금을 더 거두거나, 나랏빚을 내서 조달한다면 그것이 지속가능한가. 무엇보다 안정적 일자리 없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가능하긴 한가.

분명한 것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먹사니즘’엔 어떻게 기업들을 신명나게 뛰게 할지, 어떻게 기업이 정신이 춤추게 할지 큰 구상이 보이지 않는다. 이 전 대표의 민주당은 ‘반

세계가 일자리 창출 전쟁인데
여야는 구체적 비전 제시 못해
반기업법 접고, 기업 뛰게 해야

(反)기업’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재계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결사반대하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일자리 만들기가 첫째여야 하고, 반기업 정서와 결별부터 하는 것이 맞다.

더 불가사의한 건 여당인 국민의힘이다. 보수 정당이라면서도 생산적인 일자리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양극화 해소, 기회 사다리 재구축 등 보수가 당장 해야 할 일의 출발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닌가. 새 리더로 선출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지자”고 외쳤다. 그러나 일자리 비전 제시는 없었다.

글로벌 경제전쟁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일자리 전쟁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트럼프의 관세 폭탄도 다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다. 우리에겐 어떤 전략이 있나.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한다면 이재명의 ‘먹사니즘’도, 한동훈의 ‘유능함’도 다 허된 것이 아닌가.

수석논설위원

티몬·위메프 사태 확산, 공정위·금감원 적극 나서야

온라인 쇼핑몰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금 지연 사태의 후유증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에 입점했던 여행·유통업체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을 취소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쿠팡·11번가·G마켓에 이어 국내 4, 5위 이커머스 업체다. 두 쇼핑앱 사용자가 각각 437만 명, 432만 명에 달한다.

이번 사태는 모기업 큐텐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한 자금 흐름 악화 때문이다. 큐텐은 2022년 티몬을, 지난해 인터파크쇼핑과 위메프를 인수했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큐텐은 올해 2월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를 1억7300만 달러(약 2300억원)에 사들이면서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다.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은 티몬으로 이어졌고, 휴가철을 맞아 이 쇼핑몰에서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 등 여행상품을 산 소비자들은 구매가 취소되고 환불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두 쇼핑몰에선 현재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고, 결제를 취소해도 환불이 어렵다. 소비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2의 머지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년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머지머니를 팔았지만 결국 현금 부족으로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터졌다. 위메프·티몬은 선불충전금인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할인 판매했다. 이들 업

체가 부족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몬 캐시와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할인 판매한 것이라면 머지 사태와 다를 게 별로 없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법학고수 출신이니 그의 말에 법적으로 틀린 데는 없을 것이다. 민사 문제라면 당사자 간 해결이 원칙이다. 하지만 지난달 두 회사를 합해 1조원이 넘게 결제된 쇼핑몰에 사고가 터졌는데 정부가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두 회사는 공정위가 관할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다. 표시 광고나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이들 업체가 전자금융업자이기도 한 만큼 금융감독원도 현금 유동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위메프·티몬은 고객이 결제하면 대금을 최대 두 달 후에 판매자에게 정산해 준다. 정산 대금을 다른 데로 돌려 쓰면서 현금이 부족해진 끝에 이번 사태가 터졌다. 두 회사는 뒤늦게 제3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안전하게 거처하는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고칠 바엔 확실하게 고치고, 정부도 필요한 점검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해야 할 시간이다.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약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제)사: 제이피인쇄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리(제)사: 뉴스위크, 한국경제신문,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안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데일 **703-354-1515**
2층 소름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7월 스페셜 Special SALE

안마의자 할부도 건강마을이 하면 특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48개월 특별한 비용으로 할부 구매하세요.

바디프랜드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 세계가 인정하는 바디프랜드를 경험하세요!

이제 전신 마사지는 물론 **브레인 마사지까지!**
MENTAL MASSAGE **브레인마사지 특허**

하루의 피로가 **짜~악** 구석구석 뭉친 근육이 **짜~악** 날아갈 것 같은 개운한 하루! 큰맘 먹고 사길 참 잘했어요!

자신 있게 선보이는 신제품 **품격 있는 메디케어 안마의자**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보세요.**

Pharaoh S II BLACK EDITION
파라오 S2
블랙 에디션의 특별함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특별한 기능이 더해져 더욱 품격 있는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팬텀2 **펠리스2**

첫 발을 땀다 마침내 자유 팬텀 로보!
PHANTOM ROVO
새로운 기술 · 새로운 움직임 · 새로운 재미
관절에 문제 있으신 분들께 마사지와 자전거타기 운동을 동시에!!

안마의자인가 의료가기인가
바디프랜드의 전신마사지 기술로 안마의자, 의료가기가 되다!
PHANTOM Medical
PEMF 전자기장으로 근육통 완화!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한 견인!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한 견인!

5 YEAR 레전드 마사지체어의 진화! 파라오S2 블랙에디션

어떤 공간에도 부담 없이 어우러지는 **팔콘**

더욱 완벽하게 진화한 바디프랜드만의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좌우 다리 독립구동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로보워킹으로 스트레칭 효과 UP!

- 새로워진 8가지 로보케어워킹 프로그램
- 최적화된 XD 마사지 모듈
-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쿼다이얼
- 24가지 다양한 안마 프로그램
- 폭신한 에어백
- 손지압 패드
- 강화된 안전센서
- 3단계 온열
- 자동 체형 인식
- 다리길이 자동 조절

내 집에 **쓱** 내 몸에 **쓱~**

지금껏 닿지 못했던 코어근육 스트레칭 효과!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Compact & Perfect **헬스케어로봇 팔콘**
\$4,999

BODYFRIEND

오래된 안마의자를 **특가 세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속시원히 할인해 드립니다.

Osaki PRO 4D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뉴 프리미엄 4D 안마의자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휴표 흥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를 원료로한 휴표 흥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전면: 고급 인조 양털
▶후면: 고급대(竹) 자리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흥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임정기념 세일 ~~\$1,799~~ **\$1,499**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단단한 뉴질랜드 원목 3 간단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로 거기를 채우고 따듯하세요~

버지니아 워싱턴 월단 지정 대리점

월단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짜맞춤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임정기념 세일 ~~\$1,799~~ **\$1,499**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단단한 뉴질랜드 원목 3 간단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로 거기를 채우고 따듯하세요~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율 1위 차지

일월 개화몽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워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기모크세사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세알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속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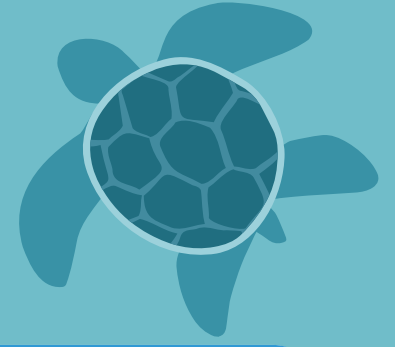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JULY 25th – AUG. 1st, 2024

SUHYUP
Swimming Crab
수협 대한민국
명품 꽃게

HIGH QUALITY/BIG SIZE
3-4 CNT (2.2 LB/BOX)

\$14.99

* 해당 제품은 무게에 따라서 갯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Size and quantity of product vary based on weight.



대만 국민 어포!
NORTH SEA
Fish Snack
피쉬스낵

~~\$9.99~~

\$7.99

8 OZ
(ORIGINAL x 3 EA +
SPICY X 1 EA/PKG)



JULY 25th – AUG. 1st, 2024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July 25,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증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당한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우리집 시세 무료 사이트서 알아볼까

주택 감정가 vs. 시장가치 집을 꼭 팔지 않더라도 홈오너들은 자신의 집값에 대해 늘 관심 있게 마련이다. 집값 산정은 감정가(Assessed Value)와 시장가치(Market Value)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산정 방법도, 그 용도에도 차이가 있다. 감정가는 주로 재산세 산정 시 사용되고 시장가치는 주택 판매 또는 재용자 시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순자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순자산 총액은 물론 해당 주택 판매 시 얻게 될 수익, 지역 부동산 시장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파악에도 중요하다. 주택 감정가와 시장가치의 차이 및 산정 방법,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 가격들이 사용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다.



감정가와 시장가격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순자산, 판매 시 얻게 될 수익, 지역 부동산 시장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unsplash.com 제공]

질로, 리얼터닷컴, FHFA 등서 제공
정확한 정보는 감정사에 의뢰해야

▶시장가치 시장 가격은 현 시장에서 바이어가 집을 사기 위해 지불할 의향이 있는 예상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감정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감정사는 최근 시장에 나온 비슷한 스펙을 가진 매물들의 판매 기록을 비롯해 해당 주택 상태,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시장가치를 산정한다. 이 시장가치는 주로 집을 매매하거나 모기지 융자 시 활용된다.

리얼터닷컴(Realtor.com)의 다니엘 헤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가치는 집을 팔거나 재용자 신청 시 은행이 평가하는 금액”이라며 “시장가치는 최근 판매된 유사한 매물의 실거래가와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감정사는 주로 모기지 대출기관이 선정하는데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

집값 시세는 질로 제스티메이트(Zillow's Zestimate), 리얼터닷컴

의 리얼밸류(RealValue), 연방주택금융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의 집값 계산기(House Price Calculator) 등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트는 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주변 주택 시세로 측정하는 것이다 보니 정확하지도 않고 공식적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전문 감정사에게 의뢰해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감정가 감정가는 시장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주요 지표인데 주로 재산세 산정 시 가장 많이 적용된다. 따라서 감정가는 주 및 카운티, 시정부 관련 법에 의거해 산정된다. 국제감정사협회(IAAO) 마지 쿡 리서치 매니저는 “대다수 주정부는 부동산 가치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따라서 재산세 산정과 관련해 모든 홈오너들은 주택 매매가와 별개로

해당 지역의 관련법, 평가 계산법, 재산세 등을 잘 숙지하고 있는게 좋다”고 설명한다. 감정가는 주택의 상태, 개선 사항, 수익 창출 여부 등이 반영되는데 감정가가 낮아수록 재산세 부담은 적어진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감정가는 시장가치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데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파트나 상가, 사무용 건물 등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진행할 시 감정사는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주거용 주택 감정 시 드는 비용은 전국 평균 313~423달러인데 판매와 상관없이 홈오너가 의뢰 시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고 대출기관이 의뢰시엔 바이어가 지불해야 한다.

감정사가 평가한 감정가 또는 시장가치에 홈오너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홈오너가 감정사가 평가한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실 천장 높이가 7피트를 넘고, 방화벽이 설치돼 있고, 카펫이나 목재 마루 등으로 마감돼 독립적인 공간으로 개조된 지하실(finished basement)이 감정 시 누락됐다면 이를 주택 크기에 포함시켜 재감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기관이 의뢰해 이미 감정이 완료됐을 경우 재감정으로 대출기관의 융자 또는 재용자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반대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감정가가 생각보다 높아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게 됐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주현 객원기자
▶4면 '시세'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MD 지어인트 No. 1 에이전트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챗GPT와 엔비디아가 쏟아 올린 인공지능(AI)의 시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분야는 전기·수도·통신 같은 '유틸리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서 지난해 대비 올해 성장률이 가장 높은 섹터 1위가 유틸리티(33%), 2위는 에너지(17%)였다. 미 빅테크 기업들은 AI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구글 검색 한 번에 사용하는 전력은 0.3Wh(와트시)지만, 챗GPT는 무려 2.9Wh를 쓴다. 데이터센터의 탐욕스러운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전기를 만들고 실어 나르는 유틸리티-에너지 산업의 동반 성장이 필수적이다.



엔비디아 3배 뛴 때 3.8배 꺾충... 이유 있는 'E·U'

(에너지·유틸리티)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노잼' 주식으로 취급받던 유틸리티 종목을 았다뼉 바꾸기에 나섰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데이터센터와 관련 에너지 종목을 담은 '파워업 아메리카'와, 장비 관련주를 담은 '데이터센터 장비' 투자 리스트를 공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 또한 AI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유틸리티 추천 종목을 선별해 제시하고 있다. 머니랩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주목하는 AI 데이터센터 관련 대표 기업 목록을 소개한다.

미국의 전력과 유틸리티 산업이 슈퍼 사이클에 들어섰다고 보는 근거는 AI뿐만이 아니다.

우선 미국의 전력 수요는 지난 20년간 정체돼 있었다. 2000~2020년까지 전력 수요는 9%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가 확산하면서 업계에선 향후 20년간 전력 수요가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의 대형 변압기는 1950~70년대 설치된 뒤 거의 건드리지 않아 교체 시기가 임박했다. 여기에 AI 붐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신규 인프라 설치도 급증할 전망이다.

온쇼어링(On-Shoring)도 변수다. 과거엔 미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보내는 '오프쇼어링'이 대세였다. 하지만 중국과의 갈등, 코로나19 등으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정부는 제조 시설을 미국에 두는 '온쇼어링'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 내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제프리스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33%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터센터에는 시설을 지을 부동산부터 전력 공급용 장비,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이 필요하다. 골드만삭스의 '데이터센터 장비' 투자 바구니(investment basket)는 이런 기업을 망라했다. 반도체 기업을 제외하고 가장 비중이 높은 유틸리티, 부동산 기업을 소개한다.

데이터센터 장비·부동산 관련 기업

버티브 홀딩스(Vertiv Holdings-VRT)는 배전 설비 기업이지만, AI 수혜주로 주목받는 이유는 '액체 냉각 시스템'의 선도적 기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엔

비디아 주가는 3배 올랐는데, 같은 기간 버티브는 3.8배 뛰었다. 주가수익비율(PE) 37배로 유틸리티 업종에선 비싼 가격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갈 길이 더 많이 남았다는 데 주목한다. 김도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아직 서버 발열 제어라는 독특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은 없고, 2028년까지 매년 10%씩 성장하겠다는 버티브 측 계획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튼 코퍼레이션(Eaton Corp-ETN)은 이튼은 백업 전력 장치, 회로 차단기, 배전 설비, 분전반 등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에 필수적 장치를 만드는 회사다. 올해 1분기엔 전년 대비 3.4%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미 지난 1년간 주가가 1.6배 올랐다. 이튼은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향후 실적 목표치를 높이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소유한다-리츠

리츠(REITs)는 투자자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한다. 기초자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곧 리츠의 가치다. 고금리 환경에서 리츠 수익

률은 떨어졌지만, AI붐과 함께 데이터센터 전문 리츠가 빛을 보고 있다.

에퀴닉스(Equinix-EQIX)=260여 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글로벌 1위 데이터센터 임대사업자다. 에퀴닉스는 2023년에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96%를 달성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준수하려는 테크기업들의 요구 수준을 일찌감치 맞춘 강점이 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50여 개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개발 중인데 이후에는 (데이터센터) 규모(용량)가 2배로 늘어났다"고 했다.

디지털리얼티 트러스트(Digital Realty Trust-DLR)=매출 규모로는 에퀴닉스에 이어 2위, 데이터 용량으로는 1위다. 28개국에 300여 개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다. 제프리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DLR를 톱픽으로 꼽았다. 도매 및 하이퍼스케일(10만 대 이상 초대규모 서버)에서 더 강점이 있고 최근 2년간 임대료를 80% 이상 인상했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 위한 전력 공급 기업

AI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는 전기다. 미국 전력기업들은 가동을 멈춘 원자

력발전소 재가동까지 고려하고 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던 재생에너지 업계도 들쭉이다. 다음은 골드만삭스의 데이터센터 관련 에너지 투자 바스켓인 '파워업 아메리카' 핵심 종목들이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Constellation Energy-CEG)=전력 생산·판매 기업으로, 미국 내 전력기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원자력이 차지하는 발전 비중(67%)도 경쟁사 대비 가장 높다. 최근 미국 정부가 다시 원자력에 힘을 실으면서 이 기업이 수혜를 입을 거란 예상도 나온다. 특히 CEG는 주 정부와 계약해 요금 규제를 받는 전력업체가 아니라 고객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비규제 독립 전력생산업체(IPP)'다. 업계에선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수록 IPP의 수익성이 높아질 거란 예상 나온다.

넥스트에라 에너지(NextEra Energy-NEE)=NEE는 시가총액 1500억 달러(약 208조원)의 미국 최대 전력기업이다.

남윤서 기자

▶ 4면 'E·U'로 이어집니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페어팩스 타운홈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875,000

방3, 화3.5, 차고2. 2001년산 End Unit, Super Location, Walk-Out, 새지붕, 2층 새카펫, New Appliances

렌트 \$3,200

방3, 화2.55, 차고1, 전체마루 한인 커뮤니티센터근처, 굿로케이션, Move-in Ready

\$880,000

방4, 화3, 차고2, Ranch 스타일, 1.12 Acre, All Brick, 새지붕&새 거터, 잘 가꾼 뒷마당 숲이 아름다운 집

\$1,250,000

방4/화3.5/차고2, 코너집, 굿로케이션, Many Upgraded, Library, Recreation Room, 아름다운 정원, 주인이 잘 관리한 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요즘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국채 불안 불안”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SBF·32)는 ‘코인의 왕’이었다. MIT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한 뒤 자산운용을 하다 암호화폐 세계에 뛰어들어 FTX를 세웠다. 한때 자산이 260억 달러(약 36조원)에 이르렀다.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성공한 게 아니었다. 법규가 없는 자유방임 시장인 코인 세계에서 위기에 빠진 곳을 구제하는 만능 구슬을 하기도 했다. 월가와 실리콘밸리에서 SBF라는 이니셜만 대도 누구나 아는 인물이 된 이유다. 이랬던 SBF가 1심 재판에서 25년 형과 벌금 110억 달러(약 15조원)를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다. 고객이 맡긴 돈을 다른 명의의 예금계좌에 넣어두고 일부를 미 정·관계와 중국 실력자 등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 가운데 일부가 인정됐다.



월가의 금융작가 마이클 루이스는 미국채 부실화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최근 샘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를 다룬 ‘고잉 인피니트’를 출간했다. (블룸버그)

SBF는 돈의 세계에서 ‘추락한 천사’다. 스타에서 빌런이 됐다. 이런 캐릭터라면 절대 놓치지 않을 작가가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다룬 『빅쇼트』의 작가 마이클 루이스다. 아나나 다를까. 루이스가 SBF를 해부한 『고잉 인피니트』(Going Infinite)를 내놓았다. 중앙일보가 한국어판 『고잉 인피니트』의 출판을 계기로 루이스를 화상 인터뷰했다.

“법 위반했지만 나쁜 놈은 아니다”

“지금까지 금융 논픽션 작가로서 받아온 여정 가운데 『고잉 인피니트』는 어떤 의미일까.

“내가 머니게임 이야기만 쓴 게 아니다. 『머니볼』 등은 금융 세계와 직접 관련이 없다. 『고잉 인피니트』는 『라이어스 포커』와 『빅쇼트』, 『플래시보이』(Flash Boy)처럼 월가 이야기다. 그러나 금융세계는 시시각각 변하고 새로운 캐릭터로 가득하다. 모든 작품이 인물과 스토리가 모두 다르다. 책을 쓸 때마다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느낌이 든다.”

“『고잉 인피니트』 속 SBF는 아주 다면적인 캐릭터인 듯하다. 직접 만나 대화하고 관찰해본 작가가 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SBF는 아주 복잡한 느낌이 드는 캐릭터다.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 그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 눈에 비친 그는 ‘나쁜 놈’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 사법부의 판단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형량이 지나치다는 말인가. “그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다만 25년 동안 감방에 있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판사는 SBF가 사회를 위협하

기 때문에 25년 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동의할 수 없는 대목이다.”

“SBF가 사회를 위협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판결문을 보면 판사는 SBF가 사회를 ‘위협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협하기’ 때문에 장기간 격리한다고 했다. 앞으로 위협할 수 있어서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 법규와 월가 관행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금융계에서 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회를 위협할 지 의문이다.”

“SBF가 법을 어기기는 했지만 나쁜 놈은 아니라고 했는데, 좀 모호하게 들린다.

“그는 법규나 관행에 무관심했다. 통상적으로 인정된 윤리에 대해서도 무심했다. 이는 분명 잘못이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월가의 유명한 금융가뿐 아니라 워싱턴의 정치인,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자 등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모두 그를 좋아했다. 정말 의아했다.”

외부 세계 의식하지 않는 젊은 천재

“돈을 잘 써서 그런 것 아닐까.

“SBF가 암호화폐 세계를 위해 정치인 등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SBF를 인간적으로 좋아했다. SBF를 무태고고 미워하면 그의 스토리를 통해 놓칠 수 있다. 그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지적인 측면에선 수긍할 수 있는 젊은이다. 사회적으로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윤리체계를 가진 인물이다.”

“용납할 수 없는 윤리체계라니.

“그가 미국에 송환돼 가택연금 상태일 때 만났다. 그의 부모는 거의 패

‘코인 왕’ 샘 뱅크먼-프리드 스토리 『고잉 인피니트』 제목으로 출간

법규·윤리 무관심한 물리학 수재 분산투자 맹신했다 한순간 몰락

미국채, 다음 위기 방어책 될 수도 부실화 땀 글로벌 금융시스템 흔들

닉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했다. 외부 세계 시선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교도소 수감 자체가 그에게는 징벌이 아닐 것이다. 다만, 인터넷을 하지 못한다는 점만 괴로울 것이다.”

SBF 부모는 모두 미 서부 명문대학인 스탠퍼드 로스쿨 교수다. SBF가 지식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나 희대의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미 사회에 적잖은 충격이기도 했다.

한편, 마이클 루이스는 학부(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고고학을 공부하고,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1990년대 초까지 가장 현란한 채권 트레이딩을 벌인 투자은행 샐러먼브러더스에 들어가 머니게임 현장을 경험했다.

“샐러먼브러더스 출신인 존 메리웨더와 존 쿠퍼랜드 등이 1998년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든 롱텀캐피탈 사태 주인공이었다. 이들과 SBF의 캐릭터를 비교한다면.

“좋은 질문이다. 롱텀캐피탈이 붕괴했을 때 메리웨더 등이 나를 불러 자신

들의 이야기를 써달라고 했다. 책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뉴욕타임스(NYT)의 매거진에 길게 기사로 썼다. 무엇이 롱텀캐피탈을 무너뜨렸는가를 쓴 것이다.”

“분산투자 허상에 당해”

“양쪽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롱텀캐피탈 주인공들과 SBF는 모두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양쪽 모두 비극의 순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포트폴리오가 아주 잘 분산돼 안전한 줄 알았다.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있는 자산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 결과는 어땠나.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태로 롱텀캐피탈이 사들인 주요 나라 국채 가격이 동시에 떨어졌다. SBF의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가상자산도 어느 순간 동시에 하락했다. 그 바람에 파국을 맞았다.”

“월가의 금융 스캔들 주인공 가운데 SBF와 비슷한 캐릭터가 있을까.

“정크본드 황제 마이클 밀켄이다. 밀켄은 정크본드 게임을 아주 공격적으로 빠르게 펼쳤다(이때 정크본드 주매수자가 미국식 저축은행 대부조합이었는데, 결국 줄줄이 파산해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SBF의 머니게임 속도도 빨랐다. 동시에 법규에 무관심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다. SBF는 인류를 멸종에서 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이런 캐릭터와 확신 때문에 SBF의 머니게임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going infinite’)는 게 루이스의 부연 설명이다).”

“시 버블 붕괴는 찻잔 속 태풍”

루이스는 금융 논픽션 작가로 위기를 일으킨 인물들을 직접 만났다. 『라이어스 포커』와 『빅쇼트』 등에 위기로 이어진 머니게임 실상이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돼 있다. 금융 매커니즘을 잘 모르면 할 수 없는 묘사다. 이런 그의 눈에 요즘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비칠지 궁금했다.

“뉴욕 주가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탄탄한 흐름이다. 금융 논픽션 작가의 눈에 다음 위기를 야기할 방아쇠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들어오는가.

“요즘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국 재무부 채권(국채)이 불안 불안하다. 2008년 위기 등을 보면 미 정부가 나서서 진정시켰다. 그런데 미 정부의 재무상태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

“뿔뿔이다. 빅테크와 인공지능(AI) 주가가 버블 증상을 보인다고 경고할 줄 알았는데.

“AI 주가가 버블 상태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빅테크나 AI 버블이 붕괴한다고 해도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 뿐이다. 미 국채는 달러와 함께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거대 펀드 등의 기초 자산이다. 이런 미 국채가 부실화하면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 위기의 구세주가 사라지는 셈이다.”

“미 국채 안정성은 대통령이 누구인가에도 민감한데.

“(총격 등) 최근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은 정신적으로 손상됐다(mentally impaired)고 생각하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정신적으로 하자가 있다(mentally damaged). 그렇다고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이겨냈듯이 앞으로도 이겨낼 것으로 본다.”(바이든은 이 인터뷰 뒤인 21일 후보 사퇴를 발표했다.)

강남규 국제경제전문기자

DC 참고 SOLD \$ 2.5M DC NoMa Metro 상권	DC 사평센터 SOLD \$ 2.4M DC Capital Hill 지역	DC 단독건물 SOLD \$ 1.5M Benning Rd., 개발지역	DC Mixed-Use SOLD \$ 1.6M Capital Hill 지역	DC 사평센터 SOLD \$ 4.5M Popeyes, 연인컴 \$32만	DC NW 아파트 SOLD \$ 1.5M Metro 상권, 5 유닛
DC Georgetown SOLD \$ 930K Retail / Residential	DC H Street LEASED 단독건물 Union Station	DC Warehouse SOLD \$ 6.8M 67,000sf, Industrial	DC Warehouse SOLD \$ 5.8M 56,000sf, 창고 6메이커	DC Warehouse SOLD \$ 3.6M 냉장/냉동고, 창고	for SALE \$ 1.8M DC 3 유닛 주상복합 NW Metro 상권

DC 건물 리스팅 하실 건물주 분들!

DC 건물 테넌트와 TOPA 거래 전문부동산 개발업자와의 연계로 최상의 조건으로 팔아드립니다!

미셸신 케빈신

703.395.3123

FORTUNE Realty Advisors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1기 신도시 재건축 시동... 기대 크지만 한계도 많아

분당(경기도 성남시)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벋고뚱'을 울리고 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특별법(노후 계획도시정비법)의 지원을 받아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출항할 준비를 서두른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밀그림에 해당하는 기본계획 수립과 시범사업장인 선도지구 공모에 나섰다. 단지들은 선도지구 선정에서 배점이 가장 큰 주민동의율을 높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 신탁사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명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기웃거리고 있다. 건설사도 보기 드문 큰 장을 기대하며 주시한다.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올해 안에 선도지구 2만6000가구 선정과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건축에 나선다. 사진은 선도지구로 8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인 분당. [연합뉴스]

4대강 사업비 맞먹는 선도지구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물량이 1기 신도시 전체 재정비 대상 물량(26만7000가구)의 10%에 해당하는 2만6000가구(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다. 11월 선정되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건축에 들어간다.

업계는 선도지구 2만6000가구 재건축으로 4만~5만 가구의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사비 등 사업비를 20조원 이상으로 추정한다. 이 금액은 최초 1기 신도시 총 사업비(10조4700억원)의 2배가 넘고,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사업비 22조원)과 맞먹는다.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자치단체, 시공사 등과 주민 2만6000명 이상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어마어마한 역사(役事)가 계속 순항할 수 있을까.

정부가 계획한 일정이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다. 2027년 착공한다면 아파트 공사 기간이 대략 3년이어서

2030년 준공은 무리가 없다. 그런데 착공까지 이주·철거 기간 1년 반~2년을 제외하고 남은 1년~1년 반 안에 복잡한 인허가를 일사천리로 끝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반적인 재건축에선 적어도 5년 이상 걸린다.

업계 관계자는 "이주·철거 기간은 줄이기 어렵다"며 "아무리 절차를 간소화해 밀어붙이더라도 건축심의, 교통환경영향 평가, 사업승인, 조합원 분양신청, 일반분양 계획(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어떻게 1~2년 만에 해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인 '통합'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열쇠이지만 한편으로 사업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다. 통합 재건축은 여러 개 단지를 묶어 한꺼번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단독 재건축보다 사업비를 11% 가량 절감할 수 있다. 용이한 기반시설 재배치 등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이점도 있어 도시계획에서 선호된다.

2만6000가구 선도지구 공모 2027년 착공까지 일정 빠듯해 통합 재건축, 단점도 만만찮아

통합 재건축의 매력은 무엇보다 안전진단 면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배 허용 등 규제 완화 혜택이다. 선도지구 선정에서도 단지 수가 많으면 점수가 높다. 영화 '혹성탈출'의 유인원 대장 시저의 말대로 뭉치면 강해진다.

하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대단지는 내용이 끊이지 않는다. 조합원이 6700명이었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는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17년이 걸렸다. 여의도 광장처럼 같은 단지도 쪼개지는 판에 입지 여건과 대지 지분 등 사업 조건이 다른 여러 개 단지의 상충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원만하게 이끌어 가기가 만만치 않다.

유명 건축가인 유현준 홍익대 교수(건축과)는 재건축의 어려움으로 대단지를 첫 번째로 꼽기도 했다. 여러 명이 모이면 점심 메뉴도 정하기 쉽지 않은

데 전 재산이 걸린 재건축에선 오죽하겠느냐는 것이다. 나이도 같고 요인이 라고 했다. 나이가 많으면 재건축으로 지은 새 아파트에 거주할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이 별로 없어 억대의 추가분담금도 걱정거리다.

재건축 시장에서 단지 규모, 주민 연령 외에 주택 크기와 주민 직접 거주 비율도 따진다. 집이 크고 직접 살지 않는 비율이 높으면 불리하다. 서울에서 잠실 등 과거 10평대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 빨랐던 이유다.

1기 신도시는 통합 재건축을 하는 데다 같은 집에서 오래 거주한 나이 든 사람이 많다. 집도 대개 30평대 이상이다. 분당 시범단지 4곳 7700가구 중 33평형(전용 84㎡) 이상이 70% 정도인 5600가구다.

용적률 완화 혜택 다 못 누리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성의 꽃이라고 할 만한 용적률 완화에 '가시'가 있다. 1기 신도시는 특별법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따라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상한의 150%까지 올릴 수 있다. 용

적률은 사업부지 대비 지상 연면적 비율이다. 높을수록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일반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인 3종 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만큼 450%까지 가능하다. 1기 신도시 이외 일반 재건축을 통해 3종 주거지역에서 올릴 수 있는 최고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0%인 360%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450%까지 올리기 어렵다. 너무 고밀이어서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국토부의 주거단지 고밀 개발 영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 일조·조망에 유리한 적정 용적률이 360%로 나타났다.

재건축으로 올라가는 용적률이 모두 사업성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용적률 증가분의 70% 이하를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기여는 땅이나 공공주택·기반시설·기여금 등으로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의 용적률이 200%, 재건축 용적률 400%, 공공기여 비율 50%라면 기부채납할 용적률이 100%((400-200)×50%)다. 400% 중 300%만 주민과 일반에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는다.

재건축 용적률, 공공기여 비율 등을 담은 기본계획이 나와야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지만 건설업계는 현재 기준으로 분기점을 일반분양가 3.3㎡당 4000만원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3.3㎡당 5000만원 이상 받을 것으로 보이는 분당을 제외하곤 사업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견이다.

백준 J&K도시정비 백준 대표는 "일반분양가를 좌우하는 주택시장 상황이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큰 배라도 바다의 날씨를 이길 순 없다. **안정원 부동산산업기자**

▶ 1번 '시세'에서 이어집니다

이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를 고용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시세보다 싸게 팔면

만약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판매했을 때 IRS는 이를 부분적 증여로 간주해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증여로 간주되는 금액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IRS 규정에 따르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개인당 1만5000달러, 부부 공동의 경우 3만달러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 액수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가치가 50만달러인 주택을 30만달러에 판매했을 경우 20만달러는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 2번 'E-U'에서 이어집니다

발전 비중으로는 천연가스(45.2%)가 가장 높지만, 풍력(25.8%)과 태양열(6.5%) 등 재생에너지 분야의 규모도 미국 최대다. 재생에너지 수주가 늘면서 매출도 늘고 있다.

퀀타서비스(Quanta Services-PWR)=전력 인프라 건설 분야의 최대 기업이다.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소, 변전소나 송전탑, 송전선 설치와 수리, 유지 등을 종합 제공할

수 있다. 노후 시설 교체부터 신규 시설 건설, 유지·보수까지 모든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PWR 주가는 지난 1년간 46%나 뛰었다.

GE버노바(GE Vernova)=제너럴일렉트릭(GE)이 3개로 쪼개지면서 전력 부문 회사인 GE버노바(Vernova)가 올해 4월 뉴욕거래소에 상장했다. 가스, 풍력발전 터빈과 변압기 등 에너지 장비가 주력 사업이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소의 커다란 풍차 날개(블레이드)의 경우, 세계 사용량의 5분의 1이 이 회사 제품이다.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숏세일, 포클로저 주택 Sale 전문

제임스 박 부동산

Dumfries Town 급매!! 3 br 3.5 baths, 1 car, 1,772sf Walkout Bsmt, 2005 \$410,000 (시세 \$50만)	Gainesville Single 급매!! 4 br 3.5 baths, 2 car Walkout Bsmt, 2002 \$570,000 (시세 \$67만)	Silver Spring Town 급매!! 3 br 2+2 baths, 1,464sf End Unit \$400,000 (시세 \$50만)
Woodbridge Single 급매!! 4 br 3.5 baths, 2 car Walkout Bsmt, 1999 \$480,000 (시세 \$60만)	Manassas Single 급매!! 4 br 3.5 baths, 4,200sf 3 car \$690,000 (시세 \$80만)	 제임스 박 NVAR 2012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Associate Broker VA FAIRFAX HQ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571.242.4500 james2424500@yahoo.com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erville, VA 20121
(센터빌 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B2501870; MD 2501870; NC L-219065; VA MC-7782; TX 2501870; PA 106923; FL MLD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7월 **HOT** 리스팅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수 있어,
파리 뒤를 쫓으면 번소 주변을,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집니다.

셀러-집팔때 신경쓰기 싫고, 부동산이 주인 입장에서 잘 알아서 해결해 주기 원할때,
비키리 부동산에 전화 주세요.

바이어-매물 부족, 이자율 상승으로 힘든 바이어 마켓에 어느때보다 전략이 절실한 때 입니다.
확실히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 / SALE



**비엔나
타운홈**
방3+화3+차고2
2001년, 2100sf
겔로스로드 던로딩 메트로
도보로 5분거리
\$970,000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임대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용자 칼럼

FHA Streamline Refinance & VA IRRL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아가는듯한 분위기가 시장에 팽배해지면서 이자율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다. 최고점을 이제는 어느 정도 확인한 듯한 모양새이다. 사정이 그러다 보니, 지난해 특히 가을 무렵 가장 높은 이자율이었던 시기에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슬슬 재융자를 통해서 페이먼트를 낮추려는 관심이 커지는 듯하다.

특히 낮은 다운으로 비교적 용자를 많이 얻어서 주택을 구입한 이들일수록 재융자에 더 절실함은 당연할 것이다. 아무래도 용자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작은 이자율의 차이에도 페이먼트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만일 정부용자 프로그램 (FHA 용자 또는 VA 군인용자)을 통해서 주택

융자를 얻었다면 지금 이자율이 하락 반전하는 시기에 이 기회를 살려서 주택감정이나 소득증명도 없이 단지 크레딧 확인만으로 간단히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FHA Streamline Refinance 또는 VA IRRL (Interest Rate Reduction Loan)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지 한번쯤 확인해보길 권한다. 현재 이자율에서 반드시 0.5% 이상의 이자율 하락 효과뿐만 아니라 재융자를 통한 페이먼트 절감 또한 5%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현재 정부용자 FHA Streamline Refinance의 FHA 30년 고정 이자율이 대략 5% 후반대가 가능하므로, 지난해 주택구입 시 7%에 육박하는 이자율을 가진 이들이라면 이를 통해 간단한 절차 거쳐 얻는 이자율 하락과 페이먼트 절감 효과는 상당할 것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으로 보인다. 물론 용자상환기간이 다시 30년으로 늘어나는 단점과 재융자에 발생하는 클로징 비용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지만 까다로운 주택용자 심사 기준 때문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통상 재융자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들, 즉 소득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 및 주택감정도 없이

간단히 크레딧 및 고용 확인만으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FHA Streamline Refinance의 기회를 통해 초 저금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란다.

FHA Streamline Refinance 처럼 VA 군인용자에서도 주택감정과 까다로운 소득증명절차 없이 간단한 재융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VA IRRL (Interest Rate Reduction Loan)이다. 흔히들 노다운, 즉 다운 없이 100% 용자로 주택구입이 가능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보험조차 내지 않는게 바로 VA 군인용자의 최대 장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한번 군인용자를 얻고 나면 그 이후론 이자율이 내려갈 때마다 까다로운 심사 없이 간단히 이자율을 낮추는 재융자를 해서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는 것 또한 군

인용자의 또하나의 큰 장점이랄 수 있다. 개개인의 크레딧에 따라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5%중후반대까지 내려간 30년 고정 군인용자 모기지 이자율을 감안한다면 지난해 높은 이자율로 군인용자를 얻은 많은 이들에겐 희소식이 될 것이다.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FHA Streamline Refinance 나 VA IRRL (Interest Rate Reduction Loan)을 통해서 현재의 낮아지고 있는 이자율의 기회를 잘 살려서 재융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이익이 기간에 비례해서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는지 또 실제로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는지 꼼꼼히 잘 따져 보고 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길 바란다.

>문의: 703-868-7147 배준원

시니어 홈 구매

은퇴 준비와 가족과의 독립은 시니어 홈 구매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55세 이상만 거주하도록 만들어진 시니어 홈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지어지는 만큼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기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은행 잔고 등 최소한의 액수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정해 놓기에 매달 관리비와 재산세를 내야 하고,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은 집 매매조차 쉽지 않다. 아무리 은행 잔고가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충분치 않다면 구매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아서다.

은퇴 후 인컴이 줄어들면 기존에 소유하던 집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사려는 분, 살던 집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분들도 있다. 갖가지 이유로 재산을 모아 놓지 못한 은퇴자들은 은퇴 연금이나 소셜 시큐리티 혜택에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부부가 받은 소셜 시큐리티에서 메디케어 월 페이먼트도 내야 하므로 연금이 없다면 생활비가 빠듯하게 된다.

하지만 시니어 홈이라고 해서 용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구매 조건이 더 까다롭지도 않다. 단지 다운사이징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의 HOA가 문제일 수 있지만, 요건만 된다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의 시니어 홈을 구매하는 것이 더욱 성공적인 은퇴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단지일수록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되며, 골프장과 승마장을 갖춘 곳도 있다. 수영장, 당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등 각종 스포츠 시설과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다. 이들 시설은 무료이거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시니어 단지 간 차별화된 편의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근 공원 혹은 쇼핑몰을 가는데에 운전 제한이 있는 은퇴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클래스 개설 여부 또는 의무실 등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구매 혹은 투자하기 전에 각 단지의 다른 점과 조건을 알아보는 것에는 렌트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포함된다. 단지에 따라 집주인이 렌트를 줄 수 있는 데가 있고 허용이 안 되는 곳이 있다. 시니어 단지 거주에는 55세 이상의 나이 제한이 있지만 구매 자체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보통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55세 이상이어야 입주할 수 있으며, 지역과 시설에 따라 이러한 기준은 다르다.

55세 이상만 거주하도록 만들어진 시니어 홈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지어지는 만큼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시니어 단지로 이사할 계획이 없어도 현재의 소득과 재정 상태를 고려해 노후 대비용 인컴 수단으로 간주해볼 만하다. 미리 구매해서 렌트 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하면 되니 투자 인컴으로도 매매가 이루어진다.

알렉스 산-뉴스타부동산 플러턴 명예 부사장

부동산 투자 현금 흐름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투자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은 부동산을 사는 주요 동기 중 하나이며,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분석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기 투자 비용, 소유 기간, 수익률 등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현금 흐름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초기 투자 금액 최소화
초기 투자 금액이 적을수록 더 많은 투자 금액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초기 투자 금액이 적은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두 개의 부동산이 있다면, 초기 투자 금액이 적은 부동산에 투자하여 남은 자금을 다른 투자 기회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며,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초기 투자 금액과 매각 가치가 동일한 두 부동산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더 큰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부동산이 더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투자자의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현금 흐름 조기 확보
투자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가 선호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A와 B가 동일한 초기 투자 금액이 필요하고, 동일한 매각 가치를 가진다고 가정할 때, 건물 A가 첫해에 10만 달러의 현금 흐름을 제공하고, 이후 매년 6만 달러의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고 가정하고, 건물 B는 첫해부터 매년 6만 달러의 현금 흐름을 제공하고 마지막 해에 10만 달러의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투자자들은 초기 단계에서 더 많은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건물 A를 선호합니다. 이는 초기 현금 흐름을 통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등 다른 재정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높은 매각 가치
소유 기간 이후 높은 매각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가 선호됩니다. 초기 투자 금액과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동일한 두 부동산이 있을 때, 소유 기간 후 더 높은 매각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이 더 매력적입니다. 이는 투자비 회수 시점에서 더 큰 자본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각 시점에서 건물 A가 건물 B보다 10% 더 높은 가격에 매각될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건물 A를 선호할 것입니다.

렉스 유-CBRE Korean Desk 대표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추천 주택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재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p>SOLD</p> <p>Bowie</p> <p>\$645,000 싱글홈, 방4, 차고2</p>	<p>UNDER CONTRACT</p> <p>Edgewater</p> <p>\$575,000 싱글홈, 방3, 차2, 0.45에이커</p>	<p>SOLD</p> <p>Rockville</p> <p>\$280,000 콘도</p>	<p>COMING SOON</p> <p>Perry Hall</p> <p>싱글홈, 방3, 차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559,000 타운홈, 방4, 차3, 차고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950,000 싱글홈, 방5, 차3.5, 차고2</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55+ Luxury \$425,000 콘도, 방2, 차2, 1,438sf</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475,000 타운홈, 방2, 차2.5, 차고1</p>	<p>COMING SOON</p> <p>Rockville</p> <p>싱글홈, 방5, 차2, 차고2</p>	<p>SOLD</p> <p>Cockeysville</p> <p>\$470,000 싱글홈, 방4, 차2.5</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RENTED</p> <p>Elkridge</p> <p>월 \$2,400 타운홈 방3, 차3</p>	<p>RENTED</p> <p>Sliver Spring</p> <p>월 \$3,500 타운홈</p>	<p>Germantown</p> <p>월 \$2,100 콘도 방2, 차2</p>	<p>Hanover</p> <p>월 \$2,650 타운홈 방3, 차3, 차고1</p>	<p>Germantown</p> <p>월 \$2,000 타운홈 방2, 차3 (지하실 제외)</p>	<p>Glen Burnie</p> <p>월 \$1,750 콘도 방2, 차1</p>
---	---	---	--	---	--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래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뿔레랑스의 나라답다, 스포츠계 이끄는 이민2세

“웹반야마 유니폼은 품질입니다.”

22일 프랑스 파리 샤를레의 한 대형 스포츠용품 매장. 물건을 파는 점원은 ‘품질’이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프랑스 남자 농구대표팀의 ‘신성’ 빅터 웹반야마(20·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유니폼을 사려는 손님이 줄을 잇자 매장 측은 따로 웹반야마 유니폼 관련 응대만 하는 점원을 배치한 것이다.

웹반야마는 2023~24시즌 미국프로 농구(NBA) 데뷔 첫 시즌부터 돌풍을 일으킨 특급 스타다.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입단한 웹반야마는 2m24cm의 거구에도 가드처럼 빠른 드리블에 3점 슛까지 평평 터뜨려 ‘외계인’라는 별명을 얻었다. 데뷔 시즌 평균 21.4점에 10.6리바운드, 3.9어시스트, 3.6블록슛을 기록해 만장일치로 신인상을 받았다.

웹반야마 만큼이나 프랑스인의 관심을 받는 선수가 또 있다. 남녀 유도의 수퍼스타 테디 리네르(35·남자 100kg 이상급)와 클라리스 아그벵누(32·여자 63kg급)다. 웹반야마가 26일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에서 프랑스의 차세대 ‘국민 스타’를 예약했다면 리네르와 아그벵누는 이미 프랑스의 ‘유도 국민남매’로 불리는 수퍼스타다. 두 선수 모두 파리올림픽에서 ‘라스트 댄스’를 앞두고 있다.



1 파리 시내 한 빌딩에 달린 프랑스 농구 국가대표 빅터 웹반야마의 대형 광고판. 파리올림픽을 통해 화합을 강조하는 프랑스는 이민 2세 선수들을 앞세워 대회 홍보에 나섰다. 2 여자 체조 선수를 모델로 한 올림픽 홍보 현수막. [AFP·연합뉴스]

리네르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최다인 11차례나 우승한 스타다. 남자 유도 최중량급에서 역대 최고의 선수로 불린다. 키 2m7cm, 몸무게 140kg의 거구인데도 화려한 기술을 펼쳐 ‘신계의 선수’로 불린다. 올림픽에선 2012 런던, 2016 리우 대회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8강에서 탈락하며 ‘한물 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1번째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홈에서 열리는 파리올림픽에서 세 번째 금메달을 노린다.

여자 유도의 아그벵누는 리우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데 이어 도쿄올림픽에서는 프랑스 유도 최초로 2관왕(개인·단체전)을 차지했다.

이들 세 명의 선수에 대한 프랑스의 높은 관심은 파리 시내를 1시간만 걸어도 실감할 수 있다. 거리의 건물 외벽, 대형 현수막, 지하철 역사, 광고판 등 파리올림픽 홍보물 대부분을 리네르, 아그벵누, 웹반야마가 장식했다. 미디어도 이들을 주목한다. 파리올림픽 공식 홈페이지는 지난 22일 리네르의 마지막 도전을 집중 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영국의 가디언은 “수퍼 루키 웹반야마가 이끄는 개최국 프랑스가 미국 ‘농구 드림팀’의 올림픽 5연속 금메달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

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파리 상젤리제의 대형 스포츠용품 매장에서 웹반야마의 농구 유니폼이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 이 가게 점원 에릭은 “유럽축구선수권이 열린 이달 초까지만 해도 축구 스타 킬리안 음바페(축구)의 유니폼이 인기였는데 최근 올림픽 열풍이 불면서 웹반야마의 프랑스 농구대표팀 유니폼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고 말했다. 이들 셋의 공통점은 프랑스 ‘이민 2세’라는 점이다. 웹반야마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이다. 아그벵누의 부모는 토고 출신이다. 아그벵누는 프랑스-토고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리네르는 중앙아메리카 카리브 해의 과들루프섬 태생이다. 프랑스령이지만, 기후·문화·환경 등이 모두 달라 사실상 다른 나라로 봐야 한다.

올림픽에 나오지 않는 프랑스 최고 스타 음바페는 아버지가 카메룬, 어머니는 알제리 출신이다. 6년째 프랑스 태권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정우민(38) 감독은 “프랑스 스포츠는 과거엔 백인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나라”라며 “이제 ‘다양성(Diversity)’은 프랑스 스포츠의 힘이다.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갖춘 다양한 인종·문화권의 선수들을 발굴한 뒤 프랑스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결합해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올림픽에 나선 프랑스 태권도 대표팀 4명 중 3명이 이민 2세다. 프랑스 르몽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프랑스 이민자 인구는 700만 명에 달한다. 이다 도시(55) 수명연대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교수는 “프랑스는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화합된 하나의 프랑스’를 보여주려고 한다. 다양성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파리=피주영 기자

스텝·턴·점프... 15분간 폭풍처럼 몰아쳤다, 차원 다른 피날레

파리오페라발레 ‘에투알 갈라’

슈베르트 교향곡 9번 4악장이 흐르고 무용수 5명이 무대 위에 등장했다. 빠른 스텝과 턴, 점프가 이어졌다. 박자를 정확히 타면서도 우아함을 표현해야 하는, 최고난도라는 그 작품. 미국의 전설적 안무가, 윌리엄 포사이스의 ‘정교함의 짜릿한 전율(The Vertiginous Thrill of Exactitude)’이다. 20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막한 파리오페라발레(POB)의 ‘에투알 갈라 2024’ 공연 피날레에서 최고 등급 무용수인 에투알 4인과 제1무용수 1인은 정교함을 뽐내며 관객에게 짜릿함을 선사했다. 무용계 최고 권위 상인 ‘브누아 드 라 당스’를 받은 POB의 박세은(35)조차 “에투알에게도 어려운 춤”이라고 했던 작품이다.



박세은과 폴 마르크가 관능적인 안무의 마농 파드되를 추고 있다. [사진 예술의전당]

가지 않을 만큼 빼어난 기량을 뽐냈다. 빠른 스텝이 촘촘하게 이어지고, 많은 피루엣(회전)과 점프가 있었지만, 교과서처럼 표현했다. 동료 에투알 폴 마르크와의 춤은 역동적이면서 우아했다. 15분간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안무를 소화한 POB 무용수들은 거친 숨을 내쉬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마농의 이야기’ 1막 침실 파드되(2인무)에서 박세은은 소녀로 변신했다. 테그리외에게 다가갈 장난질 때는 개구쟁이 소녀 얼굴을 하다가도, 격정적으로 테그리외를 껴안을 때는 가련한 처녀로 변신했다.

2023년 승급한 신입 에투알 한나 오닐의 ‘카르멘’도 큰 박수를 받았다.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를 바탕으로 만든 발레 ‘카르멘’은 프랑스 안무가 롤랑 프티의 대표작. 프티의 ‘카르멘’은 1949년 초연 당시 과격적인 의상과 안무, 헤

어스타일로 큰 이슈가 됐다. 오닐은 ‘카르멘’ 침실 파드되에서 요염하면서도 어디로 뻗지 모르는 카르멘을 연기했다. 특히 탄탄한 밸런스와 하체 테크닉이 빛났다. 뉴질랜드 출신 오닐은 박세은처럼 POB의 몇 안 되는 외국인 무용수다.

POB 갈라는 23~24일에는 9개의 새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23일부터 박세은은 ‘빈사의 백조’와 ‘백조의 호수’ 3막 흑조 3인무에 나선다. 오닐은 ‘뭉짓’ 중 ‘푸른색의 정신’ 파드되를 선보인다. 프랑스 안무가 캐롤린 칼슨이 안무한 작품으로, 1997년 초연 당시 현대 무용과 클래식 발레를 섞은 듯한 안무로 주목받았다. 발랑틴 콜라스트는 ‘돈키호테’의 ‘키트리’로 분한다. 7년 차 에투알인 레오노르 볼락이 선보이는 조지 발란신의 ‘차이콥스키 파드되’도 기대를 모은다. 홍자유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isystems.com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플러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a.edu (213)381-3710

Mark: (welcoming Louis in) You're our first visitor.
마크: (루이스를 반기며) 저네가 첫 방문객이야.
Louis: This is a big house! You have a lot of space now.
루이스: 집 정말 큰데! 공간이 아주 많아졌어.
Ruth: The last owners really let this house run down.
루스: 옛 주인들이 이 집을 아주 닳도록 그냥 놔뒀어.
Mark: We'll fix the place up ourselves by degrees.
마크: 우리가 조금씩 고쳐나가자지 뭐.
Ruth: It's going to take a long time but we'll get

it done.
루스: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해낼 거야.
Mark: When people come to visit we really want to show it off.
마크: 사람들이 방문하면 아주 자랑하고 싶어.
Louis: You have your work cut out for you.
루이스: 할일이 아주 많구먼.
Mark: We know but it's our house. Our first house.
마크: 알지 그래도 우리 집이니까. 우리가 처음 산 집.
Louis: I have lots of tools. I'd like to help,

run down; 닳다, 쇠약해지다

(Mark and Ruth have bought a new house and their friend Louis is visiting...)
(마크와 루스가 새 집을 샀는데 친구 루이스가 방문중이다...)

루이스: 나한테 연장이 많이 있어. 나도 돕고 싶어.
Mark: Great! We can use all the help we can get.
마크: 잘됐네! 도움이 아주 많이 필요해.

it off to me." (스탠이 새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저한테 과시하고 싶어하죠.)

▶ (one) has (one's) work cut out for (one):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다 할일이 많다

"You're going to teach elementary school? You have your work cut out for you." (초등학교를 가르칠 실 거라고요?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기억할만한 표현

- ▶ (do something) by degrees: 천천히 조금씩
"I painted the whole house by degrees." (전 조금씩 집 전체를 모두 페인트칠했습니다.)
▶ show it (or something) off: 자랑하다 과시하다
"Stan bought a new motorcycle. He wants to show

날말퀴즈

Grid for the word puzzle with numbers 1-28 indicating starting positions.

가로열쇠

(1)대통령이나 나무통 속에 화살 같은 것을 넣고 입으로 불어서 쏘는 총 (3)서로 교차하는 도로들을 입체적으로 만든 시설. 인터체인지 (6)장이나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장타령을 부르던 동남아 치 (7)갈참나무, 졸참나무, 물참나무, 떡갈나무의 열매. 목을 쭈어 먹조 (9)어린 무 (10)떠나가는 사람을 따라 나가 작별 인사를 하여 보냄 (11)남의 노래를 흉내 내는 일 (12)논밭을 가는 농기구. 소나 말이 끌조 (13)몹시 가파르게 비탈진 곳 (15)호수와 땅이 맞닿은 곳. 호숫가. ~의 도시 춘천 (16)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 (17)몹시 번쩍스럽고 못된, 피가 많은 여자. ~의 꺾에 빠지다 (19)어떤 물건을 자기의 차지로 만들. 탐욕스러운 그가 처가네 돈을 ~할지도 모른다 (20)웃소매의 끝에 색이 다른 천으로 이어져 댄 부분. 남치마 은색 저고리에 자주 고름 남 ~이 고왔다 (21)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함 (22)쌀을 씻어 부엌에 된 물 (23)갓난아기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 (25)오줌에서 나는 냄새 (27)가늘게 썬 고추 (28)갓난아기의 살에 채워져 있조

세로열쇠

(1)고래가 사는 곳. 지구 표면의 70.8%를 차지하조 (2)무정제로 김치를 담그는, 뿌리가 잔 무 (3)겉보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4)무거운 물건이나 돌덩이를 밧줄로 얹어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 (5)짐을 일 때 머리에 받치는 고리모양의 물건. 둥글게 빙빙 틀어 놓은 것. 구렁이가 ~를 틀고 있다 (8)보통 세 잎이지만 간혹 네 잎 달린 것도 있다. 클로버 (9)노래를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부름 (11)앞나무나 검불 따위를 모아 놓고 피우는 불 (12)운두가 얇고 둥글납작하거나 네모난, 넓고 큰 그릇. ~같이 둥근 달 (13)노래 부르는 일이 직업 (14)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딱치는 대로 하는 노동 (15)줄기차게 내리는 크고 많은 비. 집중 ~ (16)독경이나 염불을 할 때 두드리는 물건 (18)별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 (19)주머니 속의 송곳. 재능이 뛰어난 사람의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 (20)과일, 푸성귀, 해산물 따위에서 그해의 맨 나중에 나는 것 (22)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23)알뜰. 누드 (24)누에를 치는 방 (26)항문으로부터 방출된 가스체

스도쿠

3x3 Sudoku grid with some numbers filled in.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Completed 3x3 Sudoku grid.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Subscription form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Card Info, and Signature.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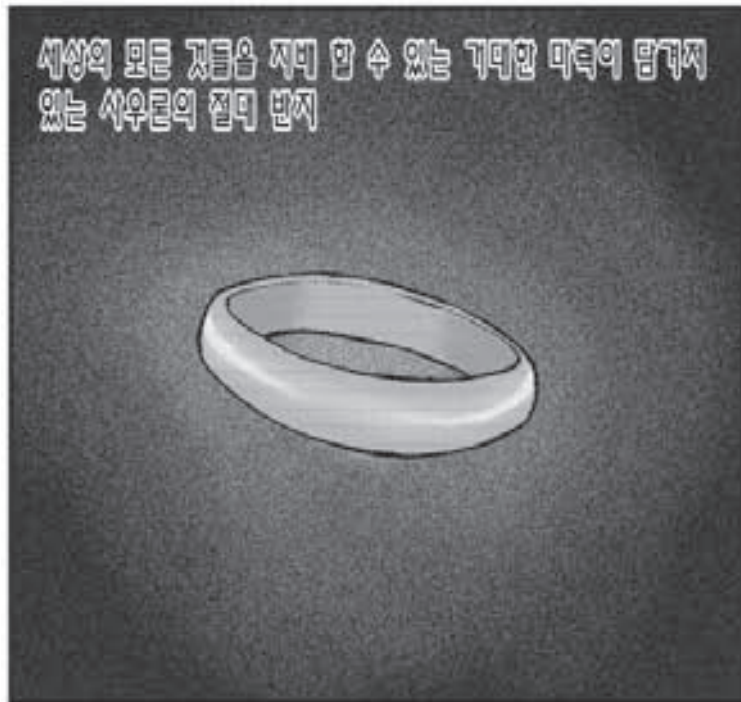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금주의주제 판타지



- 이상신
- 국종욱
- 고려터
- 병수씨
- 스바르탄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7월
구
인
광
고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 Seafood Carry Out
- Pickup Store(bowie) \$30,000
-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뉴욕 광어낚시 동우회 회원 모집

마감 목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 마감

주말 금요일 밤 Frederick(MD) 270, 80 교차로 E. EXXON GAS STATIONS에서 3명 이상 모여서 출발.

토요일 아침 뉴욕에 도착해서 Seo Queen VII Boats 7시 보트 출발, 차량, 낚시대 완비

문의
202.553.85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렌트수입 좋은 콘도 4채 매매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매매 \$515,000 (Cash Only) 콘도 한채 매매도 가능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롯데플라자 스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틸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 풀타임/파트타임
- * 영어/컴퓨터 사용
-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앤틱 한국 수출 관심있는 분

빈티지 & 앤틱 가구, 전축, 차이나셋트, 정원용품 등 1900-1950 년도 까지 물품들 무역, 수출 원하시는 분 고정 거래처 있으며 현재 월 한 컨테이너 (40')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Manassas, VA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중앙일보 애독자 분들께 알립니다
오는 7월부터 생활안내 섹션 출판고가 1개월 \$20 유료광고로 전환을 알립니다. 기존과 신규 일반광고주는 계속해서 무료로 출판고 서비스 해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출판고로 무료 게재하지 않습니다. 생활안내 무료 광고를 애용해주신 분들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후권과 관심, 지속적인 인ий용 바랍니다.

단체 광고 문의 접수 받습니다.
▶ 자세한 문의: 703-281-9660
또는 kdclass2018@gmail.com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인/구직

▶▶ 심원섭 회계법인에서 일할 회계직원 구합니다.

(1) Manager □ 5-7yrs experience. CPA Required. (2) Sr. Accountant □ 3-5yrs experience. (3) Admin-Excel, Data Entry and Bilingual skills
Compensation: Salary + Benefits
msim@michaelsimcpa.com

▶▶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 세일즈 구합니다. 경력력은 보수 (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 (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332-2101 (문자요망)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애난데일, 시원한 사무실서 파, 풀타임 근무하실 분. Junpark9@hotmail.com
571-242-3736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 이력서 joshuahon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종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 (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 (P&C License 소지자) / 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종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 디자이너를 구합니다.

■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 근무지: 승원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 사무실 경력자 우대, Benefit,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1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가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력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종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경력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 571-243-4251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 703-865-6455
다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 require 이종언어,
▶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콜럼비아
이종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1) 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 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 여)
703-850-1100/703-963-1234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 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 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 지역, MD
-사무보조: 이종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임주가능.
경력자 우대. 엘리컷시
240-426-5678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종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 위치: 메릴랜드 채섬 (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시간: 주 32 ~ 48시간 (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인출고 관리
-시간: 주 48 ~ 52시간
-유경력자 우대 (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화성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점포 인터넷서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 우드브릿지 지구 초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 (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지역 속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 (주말 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센터빌 K-밥상 (롯데 푸드코트)
가족같이 일하실 캐쉬어 구합니다.
443-864-0091

엘리컷시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싸실 분
유무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식당/제과/델리/식품

▶▶ 텍사스도넛 센터빌
베이커 보조 구함 (야간)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 (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중앙일보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폴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서 구함
703-638-8878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스킨
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다가
(571)215-6767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다가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바버 or 미용사, 바디마사지사
폴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루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얼터레이션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킹, 프레스,
빨래 /파트타임 또는 폴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얼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폴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통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폴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 정비/바디샵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연합감리회 위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EV Electric Co.
차,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력 가능
973-997 3012

기타 구인/구직

▶▶MD 아룬델힐 사평센터 근처에 위
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폴타
임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폴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노임 전문 변호사 구함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 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ilmck2@gmail.com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서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PM-7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차찍치킨 홀출아서해주실분
(703) 473 6022.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력자 환영
240-393-2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필그림유치원교사모집
토들러반 폴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시니어분들 모십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첸틀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워아웃
인테리어,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방, 전체 리모델링 주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각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부동산 렌트

방3, 화2, 유포 (전기별도) 7/1 입주가능
703-975-0123

메릴랜드 콜롬비아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잔디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가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케언스발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앤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방 4 화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택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 학생또는 직장여성
육실별도/세탁기 월 \$640 (유포)
대담업으면 메시지요망 614-615-9054

MD 락빌 홀푸드근처.
1180sq/2bed/2bath
3 & 4층 복층콘도. 좋은 학교
전체 새마루. 7월 중순 입주가능.
571-331-4746 (text 가능)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방 렌트

싱글홈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셔어
▶703-489-6926

▶▶애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방1 / 화장실/샤워
유포, 파킹 즉시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등, 저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
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애난데일 홀디포 근처 방렌트 유포
703-598-5719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싱글홈, 큰방, 욕
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열린문 교회근처
싱글하우스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심신이 편안한 생활을 위한 단층주택, 1층 콘도, 뒷밭이 있는 곳으로의 이전을 시니어 고객 전문
부동산인이 준비 상담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주차난이 심한 타운하우스 등에서
벗어나 병원, 그로서리, 레스토랑, 교통(1-66, 29, 28번 도로)이 원활한 지역에 소재한
생활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올리고 심신의 피로에서 벗어나세요.

추천물건



단독주택 \$ 524,000
방3, 화2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Ground/Split Level, NO HOA, 0.25 Ac
(1층에 방2, 화1 시니어 거주 편리)



1층 콘도 \$ 234,000
방2, 화 2 / 콘도피 \$350
상가, 병원, 그로서리등 교통 편리


* 기존 주택을 팔고 이주할 때 번거롭게 미리 집을 비우지 않아도 거래 가능합니다.
* 집을 팔거나 사기 전에 집을 손볼 곳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시?

“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아난데일 메시아 장로교회뒤 지하방/유포
703-887-5173

Fairfax VA 비엔나전철역근처 66도로495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Burke H-Mart 10분거리 2층타운홀 취사 가능 입주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개인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개인 주차자리도 있습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지역 싱글룸, 방 1 개 렌트
▶703-470-5238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롯데, H-mart 2분, 출입문 별도, 인터넷, 화장실, 샤워, 유틸리티 포함. 출퇴근 하시는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 2 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단독주택 센터빌 CVS 근처 인터넷, 윗층큰방 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

애난데일 H mart 옆 방 1 세놓음, 인터넷, 가구일체, 취사가능, 유포 \$700, 직장다니는 남/녀, 즉시입주
703-350-1986

Fairfax/Burke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문자바람
571-214-0188

사무실/점포 렌트

아난데일 오피스 렌트 (쉐어) 사용공간 룸 2개, 리셉션, 화장실, 부속실, 스킨케어, 한의원, 네일, 병원 적합.
703-989-1933(애니)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위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부동산 매매

싱글/타운/콘도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총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룸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주택, 방 4, 화 4, 편리한 레블러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학교,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룸 위층 방 3개, 화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나믹 / 아레층 방 2개, 사무실, 화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 4 화 3, 1/2
703-768-1240

미셸 & 케빈 신 부동산 건물소유하며 비지니스 하세요! 샵빌센터 / 창고,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703-395-3128 / 571-243-5797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빙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렐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Sale Price: \$290,000

·Weekly's sales: \$6300. (평균)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도넛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의 장소 입니다
▶571-421-0863

버지니아 한인타운 성업중인 반찬집/떡집/레스토랑 팝니다. 1700sf. 한식, 일식, 중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703-989-430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크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일식집, 예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염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 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썬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버크레이크 월터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신선한 야채 배추, 무, 갓, 알타리무를 농장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공급합니다. 교회, 식당 환영
240-796-009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 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식으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Calculus/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HD Plus Construction 밀웍스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론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마루

토달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블청소. 응급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슈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방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창 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민족, 귀국이 샷집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퍼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중앙유리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람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마루·텍·케비넷 샌딩 보수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핸디맨·플로잉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기타 지역

구인

아침유경험 양식숙
 특별우대, 숙식제공
 가족같이 오래 계실분
 알래스카 식당
 (907)545-5933

달리버리/주방일하실분
 부부팀도환영, 숙소제공
 알래스카 (907)855-1228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us.srotech.com **건식온돌 난방**
차콜온돌 **진짜가 나타났다**
 친환경탄소복합소재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박학박사(허위트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패이먼트 험트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효유
1-213-210-9720/papaaaa.com

서류 대행업소 매매
LA 한인타운 최고의
이민, 법률 서류 대행 사무실
 • 가격 \$36만 • 주5일 (9-5시)
 • 월순의 \$1만5천 • 30년 운영 은퇴
(213)712-4294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러치라 살매
Up to 40%
헷산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흥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러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러치로 헷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어??!!**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김 공급 및 가격으로 힘드시죠?

안전 **인증** **최고 맛** **최저 가격**

전국 최저 김밥김/스시김 한국산 취급 중국산 취급

한국산 고급 POS 종이 (한솔제지 최고급) **Hansol** (50roll / Box)

식당용 고급냅킨 **Dokdo Supply** (2Ply 3,000장)

고급 대나무 젓가락 커스텀 디자인 제작 **Dokdo Supply** (2,000개 / Box)

■ 김밥용 전장김 (100장, 50장) ■ 일식당용 반장김 (200장, 100장)
 청해김은 2015년부터 DOKDO SUPPLY 회사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고급김 Brand로 현재 남가주에서 500여 곳 및 전국 일식당 1,000여 곳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213.985.4200
DOKDOSUPPLY.COM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3, 2 Car Garage, End Unit, Update Kitchen, 새 페인트, 밝고 환한집

\$549,900



Contract

독점 RESTON VA **타운홈**

완전히 리모델링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쁜집, 방3, 화1/1.

\$479,900



독점 Manassas Park **싱글홈**

완전히 리모델링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쁜집, 2 Car Garage, 앞뜰과 뒷뜰 넓은 데크!

\$690,000



SOLD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좋은 위치의 밝고 깨끗한 환한 집, End Unit, 새로 단장한 마루, 부엌, 화장실, Granit top, All new appliance, 백야드 팬스.

\$439,900



SOLD

독점 단독주택 Alexandria

리모델링한 부엌 (새 주방용기, Granite counter-tops), 리모델링한 화장실, 새 나무 마루, New Paint, 방4, 화장실2, As-Is

\$579,900



Contract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